

제 3 편 문 예



제 1 장

여수 문학의 뿌리와 전개 양상

신 병 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장)



제1절 여수문학의 전제

여수의 문학이라고 하면, 『난중일기』와 『태백산맥』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그것은 여수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여수문학의 뿌리는 아무래도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과 민요를 그 뿌리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선 전남대 김준옥 교수가 이미 『여수 아으 동동 다리』등에서 정리를 해 두고 있다.

근대 이전 여수의 문학은 충무공의 한시와 곁은, 김윤식 등의 한시가 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충무공의 문학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조운제 박사는 『조선시가사강』에서 조선중기 시조문학의 발흥시대를 연 대표적 문인으로 이충무공을 자리매김해 두고 있다.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한산도 야음』, 『한산도가』, 『진중음』 등의 한시를 남겨두고 있어 우리지역 문학의 스토리텔

링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그와 함께 송강 정철의 형인 정소의 「종산포」, 조선 중기 명신인 이수광의 「영당」 외, 조선말 순천부사를 지낸 김윤식의 「홍국사에서」, 「도솔암」 외 여수군 초대군수인 오홍묵의 「고소대에서」 등과 한말 김유의 한시문집인 「굴은집」 등 많은 한시가 남아 있다.

여수 근대문학의 대표작은 김우평이 「학지광」에 발표한 시 「암야(暗夜)」, 「C군에게」이다. 한문학을 활발히 전개했던 이는 수현 양치유로 현재 315수가 전하며, 대표작으로 「춘한(春寒)」, 「청송(靑松)」, 「유거술회(幽居述懷)」를 꼽을 수 있다. 구비문학은 1923년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여수지방에 유행하는 동요」(박형래), 「여수지방 처녀들이 부르는 동요」(곽은덕)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이후의 한시부문은 '종산시사백일장' 과 '대한시우회한시백일장' 에서 찾을 수 있다. 종산시사(종산음사라고도 함)는 1963년 3월 한시백일장을 개최하여 백일장 수상작품집 『모정향로당선시집』(1963)을 발간했다. 그 뒤 충무공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고 수상작품집 『추모이충무공시고』 및 『종산음사시고』(1968)를 발간하여 한시문학을 이어오다 지금은 진남제 행사의 일환으로 한시백일장을 열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의 근대문학으로는 「화양일주가」와 「권노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 여수를 배경으로 하는 주요 작품

여수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으로는 김동리의 「역마」, 한강의 「여수의 사랑」, 김승옥의 「내가 흠친 여름」, 김중태의 「해적」, 김용필의 「1948년 여수의 블루스」, 동화작가 김자환의 「등대지기」를 비롯한 작품, 여수 근처의 홍합 공장을 무대로 역센 여인들의 삶을 다룬 한창훈의 「홍합」, 선우휘의 「불꽃」도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란 작가의 「국자이야기」에도 주인공 아버지의 고향에 여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김형경의 「세월」도 여수에서의 교사시절(여수여중)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소설가 이재신도 그의 소설 「시묘」, 「해풍」 등에 여수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선옥의 기행산문집 「마흔에 길을 나서다」에 실린 「봄날, 세상 귀퉁이를 가다」는 화양의 풍정을 그려놓고 있다. 그리고 작품집 「마흔살의 고백」에서 「여수, 내 마음을 품다」 등이 실려 있다.



▲ 작품집

기행문학인 김훈의 『자전거 여행』, 정성옥의 『바닷가 절 한 채』, 전수태의 『돌산섬 향일암』, 정찬주의 『암자로 가는 길』, 최정규의 『기분좋은 1박 2일』 등에 여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리고 여수문화와 여수인의 정신을 총체적으로 다룬 김준옥의 『여수 아으 동동 다리』가 있다.

2. 여수출신 주요 문인



▲ MBC드라마 「전원일기」
중에서

- 김정수 / 드라마 작가, MBC <전원일기> 작가
- 최미나(최은례)/ 1957년 『여원』에 단편 '등반' 당선. 59년 『현대문학』에 고갯길 당선
- 구중관 / 1973년 『세대』지에 청학산 당선
- 한창훈 / 1963년생,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외 6권
- 한승연 / 시인, 소설가 1986년 장편소설 『바깥바람』으로 등단
- 박보운/ 1932년생, 1959년 『자유문학』 추천. 시집 『오동도 소곡』외 다수
- 이환희 / 1925년생, 전국최초의 아동문학회를 결성하여 활동, 에세이집 『한 줄의 편지』
- 박상천 / 1955년생, 1980년 『현대문학』추천. 시집 『사랑을 찾기까지』 외 다수
- 강미영 / 1954년생, 198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꽃이 죽어가는 이유』
- 송명진 / 1945년생, 1986년 『월간문학』, 『예술세계』 등단
- 황하택 / 1939년생, 1991년 『문예사조』 시부문, 1992년 『시조문학』시조 천료, 『문예사조』 수필 당선
- 최경자 / 2003년 『시사문단』 시부문 신인상 당선
- 마경덕 / 1954년생,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
- 문신 / 1973년생,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작은 손' 당선. 시집 『물가죽복』
- 이선애 / 1955년생, 200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 서동인 / 1967년생. 2002년 리토피아 등단. 시집 『가방을 찾습니다』
- 김진수 / 2006년 『불교문예』로 등단
- 김이강 / 2006년 『시와 세계』를 통해 등단
- 이수영 / 1970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했고 서울대에서 국문학 박사 /『색수 얼리터와 광기』

- 이명원 / 1970년 전남 여수 출생. 문학평론가. 1993년 『문화일보』로 등단. 저서『타는 혀』, 『해독』, 『페니스파시즘』외.
- 김세곤 / 1953년 여수생 『송강문학기행』, 『남도문화의 향기에 취하여』 출간

3. 여수에서 문학활동을 한 문인

- 정소파 / 1960년대 초반 여수에서 활동
- 박종현 / 1960년 여수에서 여수아동문학회 결성 활동
- 전병순 / 1960년 『여원』 단편 '뉘누리' 당선. 61년 한국일보에 장편 '절망 뒤에 오는 것' 당선
- 서정희 / 1961년 시집 『배암』 출간
- 유금화 / 1963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 허의녕 / 1965년 『사상계』 신인상
- 고성익 / 1965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에 당선.
- 오재호 /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 정조 / 1967년 조선일보 희곡 당선
- 김종태 / 1980년대 여수에서 활동. 장편소설 『해적』
- 공선옥 / 2007년 여수에서 활동

4. 여수에 관해 작품을 쓴 문인

- 김영랑 / 새벽의 처형장, 어느 날 어느 때고 / 여순사건 현지
- 손숙영 / 여수부르스
- 신석정 / 오동도엘 가서
- 황동규 / 여수구항
- 박종현 / 동시집 『빨강 자동차』 / 1965. 7. 10. 여수아동문학회
- 정조 / 말 여덟 마리를 모는 마부의 꿈
- 문병란 / 여수 오동도 동백
- 김명인 / 여수
- 문인수 / 여수 '소호' 라는 여자

- 홍금자 / 여수 그 바다
- 정일근 / 모든 기차는 바다로 가고 있다
- 신달자 / 향일암 / 시집 『오래 말하는 사이』 2004. 문학세계
- 송찬호 / 붉은 눈 동백 / 시집 『붉은 눈 동백』 2000. 문학과 지성사
- 권오표 / 여수일지 / 시집 『여수일지』 문학동네 시집 18집
- 민병일 / 여수로 가는 막차 / 시집 『여수로 가는 막차』 실천문학사 103집
- 김사인 / 여수 / 시집 『여수』 문학사상
- 문정희 / 동백 이야기
- 송명진 / 바다들의 고향 여수
- 강영은 / 모든 바람은 여수로 와서 죽는다
- 김영숙 / 동백곶이 수상하다
- 조영순 / 오동도와 파랑

제2절 여수 문협과 여수문학

1. 여수 문협의 전개 개요

여수의 문학은 1955년 박보운, 엄심호, 김용태가 중심이 되어 지방종합지 『여향』을 발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뒤 1956년에 『여향』을 『역우』로 개칭하여 매일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활동한 동인으로는 박보운, 서정선, 한장춘, 김광희, 김안순 등이었고, 사실 『역우』동인이 중심이 되어 여수문협과 여수예총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박보운 시인은 1931년 생으로 29살 때인 1960년에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지역문학과 예술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문인협회 여수지부 및 한국예총여수지부의 설립을 주도했다.



▲ 여수문협 초청강연회 및 문학의 밤

1957년에 여지량, 허의령, 서정희, 김민 등이 한파문학회를 결성하여 『한파』1집을 펴내는 등 활동하다 1960년에 한파문학회를 해산하고 회원들은 『역우』로 합류하였다. 1962년에 태동한 『역우』동인들은 박보운, 김광희, 서정선을 중심으로 『시작』동인으로 개칭되면서 진명화, 최경자 시인이 입회하고 실질적인 여수문인협회의 산파역할을 하였다.

1960년에 곽진용, 박종현, 이환희 등에 의해 여수아동문학회가 창립되어 동인지 『아기섬』을 발간하는 등 우리지역 아동문학의 텃밭이 마련되었다. 문학좌담회, 아동문예교실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학생 작품을 발굴하여 수록하여 지역의 문학인재 조기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였다. 전국 최초로 결성된 아동문학 동인으로 아동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학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다.

1962년에는 『시작』동인을 중심으로 제1회 문학제, 문학심포지엄, 문학의 밤, 호남백일장, 시화전 등 다양한 문학행사를 개최하여 여수문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밑자리를 조성하였다. 동인지 『시작』1집을 발간하게 됨에 따라 현 여수 문협 기관지 『여수문학』의 근간이 되었다. 1968년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설립을 인준 받아 관문동 443번지에 현판하고 초대지부장으로 박보운 시인, 부지부장으로 여지량 시인과, 전인호 소설가가 맡고 회원으로는 김광희, 서정선, 한장춘, 최경자, 진명화 등으로 조직하고 이전의 『시작』동인이 이끌어 오던 행사인 문학의 밤, 백일장, 작품품평회, 시화전, 문학강연회 등을 승계하였다.

1972년에는 『시작동』인을 『관술』로 개명하고 품평회 72회를 개최하였으며, 『관술』1집을 발간하고 문학의 밤, 현대시화전을 개최하였으며 회원인 김혜향 작가가 전남일보 신춘문에 소설부문에 당선하였다. 1974년에는 학생 한글백일장입상 작품집인 『학생문예』를 처음 발간하기 시작하여 학생문예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 무렵에 결성하여 활동한 동인으로는 목아(회장 이선배), 청린(회장 김재득)이 있었으며 각급학교 문학동아리를 초청하여 문학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참여한 동아리로는 여수수전의 『백경』, 여수고의 『석천』, 여수여고의 『여주』, 여수상고의 『형설』, 여수공고의 『건설』, 여수중앙여고의 『화곡』 등이었다.

1980년대 초에 활동한 회원으로는 박보운, 류홍석, 김종태, 김정현, 송명진, 김성영, 박수림, 진명화, 최경자, 최성균, 정희자, 김자환, 양동조, 김종안, 심옥희, 이복희, 이성관, 조정현, 소진근, 김덕열, 강기영, 조남훈, 이규식

등이었다. 1982년에는 여수 문협이 『문예중앙』에 ‘고향에 살다’란 제호로 여수문학과 회원의 시를 특집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지역동아리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동아리 중심으로 여수문학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1980년 창립된 해백동인을 시작으로 1986년 갈무리문학회 창립, 1987년 여수수필문학회 창립, 1987년 여수갯돌아동문학회 창립, 1989년 노을문학회 창립, 1991년 여수시문학회 창립, 1993년 여수여성문학회 창립, 1992년 오령문학회 창립, 2001년 월요문학회 창립, 2003년 여수화요문학회 창립, 2006년 수필문학여백, 2007년 산문시사 등이 창립되어 동인지 발간 및 각종 문학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학을 이끌어 왔다.

2. 여수 문학의 변천사

- 1955. 박보운, 엄심호, 김용태가 중심이 되어 지방종합지 『여향』1집 발간
- 1956. 『여향』동인회를 『역우』로 개칭(박보운, 서정선, 한장춘 등) 『역우』동인회를 중심으로 가칭 예총여수지부 설립을 주도
- 1957. 『한파』문학회를 조직하고 동인지 『한파』1집 펴냄(여지량, 허의령 등) 『여수아동문학회』를 만들고 동인지 『아기섬』1집 펴냄(곽진용, 이환희 등)
- 1960. 『한파』문학회 해산, 회원은 『역우』문학동인회로 합류. 『역우』는 『시작』으로 개칭
- 1962. 『시작』동인회를 중심으로 (박보운, 김광희, 서정선 등) 여수문학제 (제1회) 문학심포지움 (제1회) 동인지 『시작』제1집 발간. 문학의 밤 (제1회) 호남백일장 (제1회) 시화전 (제1회)
- 1968.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설립 (초대 지부장 박보운 취임) 부지부장 여지량, 김광희, 서정선, 한장춘, 최경자, 진명화 등) 『시작』동인회가 이끌어 오던 각종 행사를 문인협회가 승계함.
- 1971. 문인 초청강연회 (제2회), 『시작』 동인회를 『관술』로 개정 『관술』1집 발간
- 1974. 제8회 진남제 제18회 한글백일장 『여수학생문예』제1집 발간, 한글날 기념 제19회 한글백일장
- 1976. 제10회 진남제 제22회 한글백일장
- 1981. 류홍석 제 8대 지부장 취임

제5회 여수예술제, 제30회 한글백일장, 제9회 시화전,
『문협』 제1집(제4호) 발간, 기관지 『여수문학』 3집 이후 『문협』으로
제호를 개명)



- 1983. 양동조 제9대 지부장 취임
제10회 현대 시화 합동전, 해변 문학의 밤
- 1985. 송명진 제11대 지부장 취임
제9회 여수예술제 제35회 한글백일장
제12회 회원 시화전, 여수학생문예, 제11집 발간
- 1987. 한국문인협회 심포지엄-심포지엄, 문학의 밤, 문학기행 등
- 1988. 제1회 여순합동 시낭송회
- 1990. 문협, 미협, 사협 합동전(4. 4~10)
여수 여천 문협 분리, 김종안 제1대 여천지부장 취임, 향토문인 초대
시화전(11. 8~15) KBS전시실
- 1991. 임병식 제12대 지부장 취임
유엔 가입 기념 학생백일장 대회(9. 13)
영호남 한마음 교류 시낭송회, 시화전 (10. 19~25)
- 1992. 이성관 제 13대 지부장 취임
(지부장 이성관, 부지부장 강기영, 사무장 신병은)
제 1회 여성백일장 개최
- 1993. 이성관 제14대 지부장 취임(3. 1)
제1회 한려문학상 시상식 (수상자 : 박보운, 조정현. 4. 20)
문예회관 건립기념 시화전(5. 17)
- 1994. 제10회 문인 초청강연회(10. 15 진남문예회관, 강사 : 장백일 박사)
제3회 여수, 여천 순천 문인의 밤(11월)
- 1995. 제1회 여수청소년 문학상 공모 및 시상식(5. 20 현대아트홀)
이성관 제27회 한정동 아동문학상 수상(5. 20)
시문학회 주회 서울·여수 시낭송회(8. 16 진남문예회관)
-서울 : 황금찬 시인 외 9명, 여수 : 박보운 시인 외 10명
- 1996. '96문학의 해 기념<문학의 밤>(4. 16 진남문예회관)
전남문협 심포지움 (6. 6 파크호텔)
박보운 회원 제11회 평화문학상 수상 (11. 20 구례 제일예식장)
- 1997. 배승 제15대 지부장 취임



- 1998. 한국문협 여수, 여천 지부 통합 (2. 20 신금정)
3려 통합 기념 백일장 대회 (4. 3 거북공원)
- 1999. 제1회 여수해양문학상 공모(99. 2. 20~ 8. 30)
여수문협 문학기행 (99. 8. 21)
제1회 한마음 예술제 수상자 (99. 10. 8)
지역예술문화상 : 신병은, 예총지부장 공로상 : 정회경
제1회 여수해양문학상 시상식 및 제12회 문학의 밤 (99. 10. 15)
제1회 여수해양문학상 입상 작품집『바다 그 이름만으로』발간 (99. 12. 20)
- 2000. 제2회 해양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의 밤(11. 17 진남문예회관)
- 2001. 순천 문협 초청 문학기행
제3회 여수해양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의 밤
제1회 한길문학상 시상식(12. 24) 수상자 박보은
- 2002. 제4회 여수해양문학상 및 문학의 밤(10. 25 진남문예회관)
제2회 한길문학상 시상식(12. 21) 수상자 이성관
- 2003. 임병식 제21회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제3회 한길문학상 시상식(12. 23) 수상자 정호경
- 2005. 신병은 전남시문학상 수상
- 2006. 노임숙 전남예총상 수상
- 2007. 임병식 한국수필작가회 회장 취임
- 2008. 현대시 100주년 한국시인협회 전국시인대회 개최(디오션리조트,11)
이성관 시인 전남문화상, 김양호시인 전남문학상 수상
- 2009. 제17회 여수 한려문학상 시상식(수상자 : 엄정숙)
제11회 여름 문학기행, 제37회 정기 시화전(진남문예회관),
제33회 여수예술제 (10. 12), 제31집 여수 문학 작품집 발간 (12. 28)
제11회 여수 해양 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의 밤(10. 26 진남문예회관)

3. 여수의 문학동인

여수의 문학 동인으로는 1955년 창립된 여향(1956년 역우문학회로 개명)을 시작으로, 1957년 한파문학회, 1960년 시작동인, 1965년 여수아동문학회, 1980년 창립된 해맥동인을 시작으로 1986년 갈무리문학회 창립, 1987년

여수수필문학회 창립, 1987년 여수갯돌아동문학회 창립, 1989년 노을문학회 창립, 1991년 여수시문학회 창립, 1993년 여수여성문학회 창립, 1992년 오령문학회 창립, 2001년 월요문학회 창립, 2003년 여수화요문학회 창립, 2006년 여백문학회와 산문시사 등의 동아리가 창립되어 동인지 발간 및 각종 문학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학을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1) 여향문학회

1955년 박보운, 엄심호, 김용태 등에 의해 창간되어 『여향』1집을 발행하는 등 지역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듬해인 1956년에 『역우』동인으로 개명되었다.

2) 역우문학회

1955년에 창립된 『여향』동인이 1960년에 『역우』로 동인의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역우』동인이 중심이 되어 한국예총여수지부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예총여수지부의 산파 역할을 했다.

3) 한파문학회

1957년 여지량, 허의령 등의 시인이 창립하여 동인활동을 하다 1960년에 『역우』로 합류한 뒤 『시작』동인으로 개칭되었다. 동인지 『한파』1집을 발간하였다.

4) 시작동인

『여향』문학회, 『역우』문학회가 1962년에 다시 『시작』동인회로 개명되어 활동하다 1968년에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가 태동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시작』동인회가 이끌어 오던 백일장, 작품 품평회, 문학의 밤, 시화전 등 각종 행사를 문인협회가 승계하였다.

5) 여수아동문학회

1965년 2월에 아동문학을 애호하는 현직 교사 10명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아동문학동이다. 전국 최초로 결성된 아동문학 동인으로 아동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다. 동인지 『아기섬』 3집까지 발간하였다.

6) 문학동인 해맥

1982년에 창립되어 소설가 김중태를 모시고 문학공부를 하면서 동인지 발간하고 시화전을 개최하여 여수의 청년문학을 이끌었다. 1985년 동인지 발간 1집인 『해맥』을 시작으로 1989년 2집 『청머리동이연』, 1990년 3집 『국시』를 발간, 시화전 10회, 시낭송회 20회 등 활발하게 활동하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7) 갈무리 문학회

1986년 아마추어 문학 동인으로 창립하여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회원 전원이 등단을 하여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한국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인회보 『갈무리』 제 35집을 발행하였으며 중견시인 초청 세미나(3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인시화전(3회)을 개최하기도 했다.

8) 여수수필문학회

1987년 9월 지역 수필문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의 문예창작력을 드높이기 위해 창립되었다. 동인지 『여수수필』은 1987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25집을 발간하였다.

9) 갯돌아동문학회

여수 지역 초등학교의 학교신문 발간을 촉구하고 어린이 글짓기 능력신장과 문학인재의 조기발굴 육성을 위하여, 지역 아동문학가를 중심으로 아동문학 위상을 정립하고 아동들의 문학정서 함양을 위해 1987년 7월에 창립했다. 각급 학교신문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갯돌 어린이 문예대상 제정(문예장학금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해변 청소년 문학교실 운영, 시화전 개최, 동인

지 발간, 회보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10) 노을문학회

1989년 9월 『노을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44호를 발간하였다. 문인초청 문학강좌를 통해 창작력을 높였고 월1회 작품품평회와 토론, 문학기행, 출판기념회, 타지역 문학동인과 교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창작력을 제고하고 있다.

11) 여수시문학회

여수의 시문학 동인 단체로 지역시문학의 위상과 회원들의 시 창작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1년 10월에 창립되었다. 매월 1회 회보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작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화전, 동인지 발간, 문학의 밤, 여수지역 문학동인 단체 연합 문학의 밤을 개최하여 여수문학동인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동안 회보 33집 발간, 동인지 『일곱 빛깔의 시』를 발간하였으며 1993년 9월 황금찬 시인 외 서울 문인 초청 문학의 밤(문예회관)을 개최하였으며, 1993년 5월 시화전 개최(현대아트홀)한 바 있다.

12) 여수여성문학회

1993년에 창립되어 활동하였다. 1993년 동인지 1집 『창으로 빛이 들다』를 발간 한 후 1995년까지 3집을 발간한 후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어 있다, 여수 최초의 여성문학 동인으로 지역 여성문학의 영역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13) 오령문학회

여천 주부 백일장 입상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학동인으로 1992년에 창립되어 1993년 동인지 『오령』1집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인지인 『오령』 3집까지 발간하였으며, 1998년 해체 후 일부 회원들은 한국 문인협회 여수지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4) 여수화요문학회

전남대학교 여수평생교육원 문예창작과정을 수료한 원생을 중심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반성하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길이 남을 작품을 창작하여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에 창립되었다.

그동안 창간호 『아름다운 수평을 만들며』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여 지금까지 『안부가 그리운 풍경』, 『희망 그리고 쉼표』 『나무들 이야기』 등 5권의 동인지를 발간했다.

15) 여백문학회

2005년 정호경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창립한 여류 수필 문학 동인으로 여수지역의 여성들의 문학교육과 활성화를 위해 창립되었으며 매월 수필창작론 학습 및 품평회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필가로 등단하여 지역수필문학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6) 산문시사

산문시사는 2007년 12월에 지역 문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립하였다. 주 활동은 월 1회 품평을 기본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문학적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독서 토론을 통하여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고 있다.

제3절 등단 및 작품집 발간

1. 등단 현황

- 1950년대 : 박보운(1959, 자유문학, 시)
- 1960년대 : 고성익(1965, 전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 1970년대 : 정호경(1973. 수필문학, 수필), 류홍석(1975. 월간문학, 수필), 박수림(1970. 여원, 시), 김혜향(1973. 전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구중서(1974. 세대, 소설 신인상, 진인호(1974. 새시대문학지, 소설), 여지랑(1975. 시조문학지, 시조 추천), 조정현(1975. 월간문학, 수필), 류홍석(1975. 월간문학, 수필)
- 1980년대 : 박상천(1980. 현대문학, 시) 김중태(1980. 현대문학, 소설) 김자환(1984.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이성관(1984. 월간문학, 시), 고영엽(1982. 월간문학 소설), 송명진(1986. 월간문학, 시), 신병은(1989. 시대문학, 시) 임병식(1989. 한국수필), 배승(1989. 월간 아동문예, 동시)
- 1990년대 : 김양호(1990. 시세계, 시), 정병수(1991. 문학공간, 수필), 강기영(1992. 문학예술, 수필), 진명화(1994. 자유문학, 시), 박혜연(1994. 시대문학, 시), 박해미(1994. 예술세계, 시), 최향란(1994. 한국시, 시), 김정평(1994. 한국시, 시), 정목진(본명 정희선, 1995. 문학세계), 천양희(1996. 문학춘추, 시), 정숙(1997 수필과 비평, 수필), 김성영(1993. 한국시, 시), 이명선(월간 에세이, 수필), 임용백(창조문학, 시), 김기준(수필문학, 수필), 김승종(1996. 문학21, 시), 노임숙(1996. 문학21, 시), 신지영(한국시, 시), 이성일(문학춘추, 소설), 이영은(월간문학, 시), 채의정(문학21, 시, 2006. 수필과 비평, 수필), 최원호
- 2000년대 : 배순아(2000. 전북일보 수필), 한상준(2001. 한맥문학, 수필), 서동인(2002. 리토피아, 시), 하병연(2003. 농민일보 신춘문예, 시), 황경숙(2004. 문학시대, 시) 엄정숙(2006. 매일신문 신춘, 수필) 이옥근(2006. 한국일보신춘, 동시), 김영덕(2003. 수필과 비평, 수필), 양달막(2004. 수필과 비평, 수필), 박청규(2004. 문학시대, 시), 이생룡(2004. 한맥문학, 시), 김수자(2005. 문학시대, 시), 권동지(2004. 문학춘추, 2008. 시안, 시), 주명숙(2004. 문학춘추, 시), 이해선(2006. 문학춘추, 시), 임호상(2007. 정신과 표현, 시), 정희경(문학21, 시), 김사현(수필문학, 수필) 김승하(2004. 현대문예, 시), 채의정(문학21, 2006. 수필과 비평), 김진수(2006. 불교문예, 시), 조영심(2006. 현대시학, 시), 김용연(2006. 한맥문학), 이 화(2007.

수필문학, 수필), 권신자(2008. 수필문학, 수필), 광경자(2008. 수필문학), 우동식(2009. 정신과 표현, 시), 맹정애(2009. 문학춘추, 시), 황영선(2009. 문학시대, 시), 정재권(2009. 시로 여는 세상, 시), 정영희(전남일보, 시)

2. 작품집 발간 현황

- 박보운(시) : 여수향, 임진강 빼꾸기, 오동도소곡(1999), 어선 덕수호의 향진(2003), 흑인아가펠라(에세이집)
- 정호경(수필) : 까마귀 까마귀야(1994), 오늘같이 즐거운 날(2000), 폐선(2002), 현대의 섬(2004),
- 이성관(시, 동시) : 새끼 손가락(1984), 바다와 아버지(1996), 초가지붕 하얀 박꽃(1992), 우리들 가슴에도 섬 하나씩 있다(1992), 즐거운 배웅(2006), 휘영청 밝은 달이(2003)
- 임병식(수필) : 지난세월 한 허리를(1990), 호랑이한테 물러가도(1988), 인형에 절 받고(1993), 동심으로 산다면(1996), 당신들의 사는 법(2002), 방패연(2009), 막쓰는 수필 잘 쓰는 수필 (2007. 수필 이론집)
- 김자환 (동화) : 순돌아 도망쳐, 두리 날다, 난 너하고는 달라, 진육이 안 미워하기, 여우고개, 새들은 울지 않는다(1993), 등대지기(2007), 쉬면서 노는 학교(1996) 등 동화집 40여권
- 신병은(시) : 바람과 함께 풀잎이(1990), 식물성 아침을 맞는다(1994), 강 건너 풀의 잠(2003), 바람 굽는 법(2006), 시와 그림이 있는 시집(2006), 작은 시집(2008)
- 배승(동시) : 다도해에서 온 편지(1990), 하얀 조가비의 꿈(2003)
- 김양호(시) : 차오르는 창(1994), 바다로 가는 길(2005), 시와 그림이 있는 시집(2006)
- 한상준(수필) : 하얀빛으로 날고 싶다(2001)
- 광진용(동시) : 푸르른 들녘에 서서(1996)
- 김기준(수필) : 눈 속에 죽순이 피어나다(2001)
- 고영엽(소설) : 마자수(1994), 불모의 곡, 칼새, 오동도
- 정병수(수필) : 두견화 피는 매산에 서서(1992), 매산을 찬미하다(1994)

- 정 숙(수필) : 송늬이 맛있는 집(1996), 갯벌은 바라만 봐도 좋다(2001)
- 임용백(시) : 우연한 항해, 모래위의 모닥불(1987), 사랑의 모닥불, 영혼의 모닥불, 세상보기, 슬픈 방랑자의 꿈(1989), 전라도 비단길(1990), 철마는 달린다 등
- 김종안(시) : 그 해 겨울(2004)
- 김정평(시) : 황홀한 일몰(1997) 내 인생 눈물로 채워도(2002), 우리들이 머물 곳은(2007)
- 강성재(시) : 책과 빵(1993)
- 노임숙(시, 동시) : 석류(2002), 춤추고 싶은 날(2007), 할머니 어릴 적에(2008)
- 류홍석(수필) : 행복의 모습(2002)
- 신지영(시) : 바람 부는 날(2003)
- 진명화(시) : 마주보는 섬(2003)
- 장동윤(시) : 바다 꽃(2000) 아내에게(1996)
- 이생룡(시) : 우화(2005)
- 이명선(수필) :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2002)
- 정목진(수필) : 전라도 압구정동(1998)
- 김기준(수필) : 비가오나, 눈이오나, 얼음이 어나(2007)
- 정회경(시) : 풍경, 꽃지고 날 저무는(2004)
- 주정섭(시) : 살아가기(2003)
- 최기성(동화) : 사랑해요 선생님, 엄마가 최고야(2009)
- 강기영(수필) : 해방된 상자속의 자유(2009)

제4절 여수해양문학상

여수의 자연과 인간, 삶을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아름다움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1999년에 제정된 지 11회를 맞는 여수해양문학상 작품 공모는 이제 한국해양문학의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매년 전국 유명 시인, 소설가 등이 응모하여 우리 지역의 삶을 문학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여수문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상자는 시 부문 33명



▲ 해양문학상 시상식

의 135편, 소설 부문 33명의 33편이며, 이중 중편도 1편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여수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여수해양문학상 입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어 있지만 이들 작품 중에서 소설은 영상, 애니메이션, 연극, 오페라의 대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시는 시비공원을 조성하여 여수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세계적인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대상 당선 작품

- 1999년(1회) 시 : 김종안(여수)의 여수향의
소설 : 함명자(성남)의 우리들의 시
수필 : 정숙(여수)의 개펄은 바라만 보아도 좋다
- 2000년(2회) 시 : 임정운(의왕시)의 오동도 외
소설 : 김용필(서울)의 어부의 요새
- 2001년(3회) 시 : 윤정순(부산) 바다에 쓰는 편지
소설 : 유정미(익산) 고틀이
- 2002년(4회) 시 : 엄정숙(여수) 바닷가의 집 외
소설 : 이현준(원주) 해밀턴
- 2003년(5회) 시 : 정은주(광양) 이목, 장목, 달포 외
소설 : 송재희(고흥) 금오열도
- 2004년(6회) 시 : 최향란(여수) 꽃술 외
소설 : 김춘규(서울) 그래서 바다로 갔다
- 2005년(7회) 시 : 강성재(여수) 금오도 외
소설 : 한광현(여수) 선원 일기
- 2006년(8회) 시 : 문성해(부산) 오동도에서 외
소설 : 박래여(부산) 동백나무 숲에 후박나무 그늘
- 2007년(9회) 시 : 이상운(부산) 향일암 외
소설 : 백승리(부산) 오동도
- 2008년(10회) 시 : 배기환(부산) 감성돔 외
소설 : 임메아리(서울) 빈(濱)
- 2009년(11회) 시 : 김정애(여수) 백야나룻배 외
소설 : 당선작 없음

제5절 한시 문학

한시 부문은 '종산시사백일장'과 '대한시우회한시백일장'을 찾을 수 있다. 종산시사(종산음사라고도 함)는 1963년 3월 한시백일장을 개최하여 백일장 수상 작품집 『모정향로당선시집』(1963)을 발간했다. 이때 활동한 사람은 종산음사장 이병혁, 추진위원장 룬, 부위원장 황병규, 노청봉, 김영숙, 총무 신철주, 재무 윤창한, 남태완 등이었다.

그 뒤 충무공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고 수상 작품집 『추모이충무공시교』를 발간하였으며 그 뒤 『종산음사시교』(1968)를 발간하여 한시문학을 이어오다 지금은 진남제 행사로 한시백일장이 열리고 있다.

작품 수록 회원은 김기완, 김기우, 장신모, 김윤근, 정학모, 허 식, 김영숙, 이병혁, 노청봉, 이사진, 하일청, 김상규, 신철주, 김동찬, 김찬일, 룬, 김용환, 차치도, 신한길, 김영목, 박학래, 박병순, 박종기, 김홍식, 윤맹원, 임동협, 광동현, 송정문, 박덕운, 노찬주 등이다

참고문헌

- 김준옥, 『여수 아오 동동다리』, 2004.
 여수수필문학회, 『여수수필』24집, 200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천년의 노래』, 2001.
 전남대학교 엑스포지원특성화 사업단, 『세계박람회와 여수』, 2008.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여수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 2008.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관술』 2집, 1972.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문협』1, 1981.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여수학생문예』2집, 1974.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여수문학』 30집, 2008.
 한국예총여수지부, 『여수예총 40년사』, 2003.
 한국예총여수지부, 『여수예총』 제5권, 1981.
 한국예총여수지부, 『여수예총』 제6권, 1982.
 한림문학재단, 『광주. 전남 문학동인사』, 2005.

제 2 장

음 악

임 송 (여수음악협회 지부장)



121) 여수·여천항토지면천위
원회 『여수·여천항토지』
1982, 800~807쪽.

제1절 여수 음악의 과거와 현재 ¹²¹⁾

1. 일제 강점기

국악에서는 최석옥이, 양악에서는 김홍기가 여수지역 음악계의 선각자로 활약해 왔다. 최석옥은 약관 때부터 이왕직악부에 출입하여 주악하는 일이 자주 있어 이름이 남아 있다. 후일 여수의 양악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남긴 정동영·김수옥·김채수 등도 최석옥에게서 단소를 배웠다.

1922년경 '맞돕회'는 여수공립학교(현 진남관)에서 개최하는 운동회 행사로 관악을 연주케 하여 지방 공식석상의 첫 연주가 된 기록을 남겼다.

김홍기는 여수금융조합 사환으로 근무하던 1921년부터 하모니카 불기를 즐기다가 바이올린을 배워 여수지방 양악 제1인자의 바탕을 닦았으며 1924

년에 '여수악우회'를 조직하였다. 이때의 회원은 회장 김홍기, 양금 조중응, 단소 김수옥, 코넷 조동영, 드럼 박귀환·조한열, 오르간 신동권, 하모니카 김재옥 등이었다.

'여수악우회'는 1925년 제1회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929년 제3회 음악회는 양악기만으로 연주회를 열었다. 1931년 제4회 음악회를 개최한 후 활동이 둔화되었다가 신인들을 포함한 '여수음악동인회'가 재발족되고 강대은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봄·가을 2회의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가졌다.

1940년경 여수수산학교에서 근무한 조중응은 '여수항 경치'라는 동요를 작사 작곡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사장되어 오다가 해방 후 널리 보급되어 여수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애창곡이 되었다.

2. 광복~1970년대

1946년 3월 초대회장을 맡은 김 갑과 바이올린의 곽형린 등이 주축이 된 여수 최초의 민간합창단인 '여수호악회'가 창립되어 여수극장에서 첫 합창음악발표회를 가졌고, 이를 기폭제로 하여 손완구, 김용호, 김중배, 박원배 등에 의해 여러 합창단이 창단되었다.

1962년에는 여수보육원 원아만으로 구성된 '들국화합창단(지휘 박원배)'이 창단되었다. 들국화합창단은 1971년 5월 5일 여수청년회의소(회장 임영기)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국 가라즈청년회의소의 초청으로 10월에 일본 주요 도시를 순회 공연하여 일본 국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74년 2월 '여수호악회'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로 인준을 받아 성장의 틀을 만들었고, 1970년 이후 활동단체는 여수호악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었던 '여수시립합창단', '호악회관현악단', '들국화합창단', '어머니노래회', 'KBS어린이합창단', 'YMCA어린이합창단' 및 각 교회성가대 등이 있었다.

3. 1980~1990년대

1980년 3월에 '들국화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발표회를 시작으로 김동

진 교수 초청공연, 문선임 독창회 등이 열렸고, 1981년 광주시향 초청연주회 등 초청연주회가 50여회를 넘어섰다. 1983년에는 일본 가라즈마즈우라문화연맹 사절단과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 대표로 일본 초청연주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교류 공연이 10여회에 이르렀다. 1986년 '여수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었고, 1988년에는 여수출신 작곡가 김용호의 예술가곡음반출판기념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1990년 4월 김민이 이끄는 '서울바로크합주단' 초청연주회가 있었고, 이어 여수 '베누스토실내악단'의 KBS공개홀 연주가 있었고, 94년에는 '여수아가페앙상블' 연주회가, 97년에는 이종만 작곡발표회와 '여수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있었다.

4. 2000년대 이후

2002년에는 '아마테우스앙상블' 창단 공연, 바리톤 최승남 독창회, 이해란 피아노 독주회, 손강은 독창회, 전미숙 피아노 독주회, 2005년 '여수시립합창단'의 창작오페라 '김치' 공연, 2006년 우리나라 정상급 성악가 초청음악회, 2007년 조미숙 독창회, 2008년 스타인웨이 도입 기념음악회, 2009년 피아노 듀오음악회가 있었다.

특히 정통 교향악단의 창단과 활동이 눈부셨는데, 2002년에 창단한 '여수오케스트라'는 제3회 정기연주회부터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개명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 현재 19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아래 단체 이외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는 'YWCA 여성합창단', '다움트리오', '아가페합창단', '여수플루트앙상블', '사랑의 부부합창단', '아르스노바남성합창단' 등이 있다.



▲ 여수시립합창단

제2절 여수 음악단체 현황¹²²⁾

¹²²⁾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부 『여수예술사십년사』, 2003.

1.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

1) 설립 목적

지방 음악의 향상·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국제간 또는 중앙을 비롯한 국내 각 지부와의 음악교류를 통한 지방 음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여수 시민합창제

2) 변천

1974년 7월에 설립되어 초대 지부장에 지정익이 선임되었으며 2009년 현재 임송이 지부장을 맡고 있다.

3) 주요사업과 업무

지부 내에 성악분과, 피아노분과, 관악분과, 현악분과, 합창분과, 지휘분과, 교육분과, 홍보분과, 친교분과를 두어 음악창작, 음악연주, 음악교육, 지방음악과 중앙음악의 교류, 시민 정서순화, 음악을 통한 사업, 회원 간의 친목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활동사항

1977년부터 여수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음악경연대회, 여수시민합창제를 주관하고 있다. 또 매년 지부소속 회원들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수 지역 출신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5) 임원현황

2009년 임원 현황은 이재수, 김순신, 박용래, 문선임, 최예수, 오익곤, 김성수가 고문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임송 지부장과 이종만, 이해란 부지부장, 박영집 사무국장, 김진영 회계,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과 회원 67명이 활동하고 있다.

2. 여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1) 설립목적

여수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보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로 지방음악의 발전과 지방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여수필하모니오케스트라

2) 변천

1970년 여수 최초의 오케스트라였던 여수호악회를 모태로 하여 2004년 2월에 창단되었고, 초대 단장은 지정익, 예술감독은 임송이었다. 2004년 2월 창단 연주회를 가졌고 이후 매년 3회의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으며, 2009년 11월 현재 제19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3) 주요사업과 업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충실한 연주를 위하여 단원들의 기량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고전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고전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다.

4) 현황

2009년 현재 대표 예술감독 1명,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악장 1명, 제1바이올린 12명, 제2바이올린 10명, 비올라 8명, 첼로 10명, 더블베이스 4명, 플룻 3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바순 2명, 호른 4명, 트럼펫 2명, 트럼본 3명, 튜바 1명, 타악기 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3. 아마테우스 앙상블

1) 설립목적

순수 음악예술 연구와 창작 및 연주를 통해 지역 음악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 변천

2002년 5월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차르트 사중주곡에 대한 분석과 연주를 목표로 창단 하였으며, 단장 겸 음악감독으로 임송이 활동하고 있다.

3) 주요사업과 활동사항

모차르트의 곡을 분석하여 연주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시민을 위한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 등을 개최하고 있다.

4) 현황

단장 겸 음악감독은 임송(플룻)이고, 조의진·이혜진·이은주(바이올린), 엄시영·한지영·김동민(비올라), 최인영·이진경·박영집(첼로), 엄혜경·조세진·이선주·주보연·강은영(피아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아마테우스 앙상블

4. 여수시립합창단

1) 설립목적

여수시민의 정서 함양과 여수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변천

1971년 1월 설립되어 1976년까지 활동하였는데, 초대 단장은 지정익, 초대 지휘자는 이재수였다. 1985년 재구성되어 지휘자 이재수와 75명의 남녀단원이 1996년까지 활동하였다. 박용래 단무장이 2005년까지 재임하고, 2대 지휘자로 김성수가 활동하였다.

1998년 4월 삼려통합에 따라 재구성되었고 2009년 현재 김승구가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임송이 단무장을 맡고 있다.



▲ 여수시립합창단

3) 활동사항

1998년 여수시립합창단으로 재구성된 후 54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16회의 시립합창제, 20회의 전남합창제에 참여하였다. 오동도 주말공연과 토요일 무대, 공원음악회, 한 여름밤의 음악회와 사회복지관, 학교, 병원, 종교단체, 교도소 등 찾아가는 연주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4) 현황

2009년 현재 여수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2명등 50여명의 남녀혼성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5. 여수 어머니합창단

1) 설립목적

가곡 및 건전한 노래로 어머니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며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변천

1965년 3월에 창단하였으며, 초대 지휘자는 박원배, 초대 회장은 김정순이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정당, 종교 및 사회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은 순수음악 모임체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여수의 어머니합창단이다.

3) 활동사항

1966년 8월에 창단공연을 하였고, 1973년 10월 제3회 광주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74년 9월 제4회 전국건전가요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89년 10월 일본 가라츠시 조나이코러스루피나스와 일본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였고, 1996년 2월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였다.

4) 현황

단장은 김향숙 지휘자는 이상현이며, 소프라노 12명, 메조소프라노 9명, 알토 10명과 반주자등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6. 여수시립소년소녀합창단

1) 설립목적

예능의 조기교육과 시민의 정서 함양, 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방 문화

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변천

1986년 당시 여수시장(송재구)의 지시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정비하고 7월 초등학교, 중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원 모집에 들어가, 8월 창단하였고, 초대 지휘자는 임홍순, 단무장은 박영균이 위촉을 받아 활동하였다.



▲ 여수시민합창제

3) 활동사항

37회의 정기공연과, 1989년 전국합창제, 1991년 KBS 동요잔치 및 유엔가 입경축음악회, 1994년 서울600주년 기념 동요대연합합창제, 1996년 일본 가라츠 시 초청공연, 2001년 제2회 중국 양저우(揚州) 시 국제청소년대축제 초청공연, 2002년 중국 양저우 시 국제청소년대축제 초청공연, 2002년 중국 양저우 시 초청 합동공연, 2005년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및 서울 청계천 새 물맞이 조수미와의 공연 등을 하였다.

4) 현황

1986년부터 20여 년 동안 37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한 100여회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합창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2006년부터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7. 여수시립국악단

1) 설립목적

여수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세계화를 맞아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여수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문화 브랜드를 탄생시키는데 노력하기 위하여 창단하였다.

2) 변천

2000년 7월 21일 국악관현악, 창악, 무용, 타악 등의 분야로 구성된 전문 국악 단체로 창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여수시립국악단

3) 활동사항

2009년 현재 19회의 정기공연과 매년 30여회의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4) 현황

단원은 지휘자(김종섭), 단무장(권인홍), 피리 5명, 대금 2명, 해금 4명, 가야금 4명, 거문고 2명, 아쟁 2명, 타악 3명, 신디 1명, 판소리 7명, 무용 10명으로 상임단원 30명과 비상임 단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8. 한국국악협회 여수지부

1) 설립목적

여수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 국악발전과 대중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 하였다.

2) 변천

1962년 정홍수, 서형식, 박창곤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국악협회 여수지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7월에 한국국악협회로부터 지부 설치를 인준 받았다. 초대지부장으로 정홍수를 선출하였고, 1975년 여수·여천지부로 확대 인준을 받았다. 1998년 3월 23일 여수·여천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

고, 3월 30일 통합 여수지부 총회를 개최하였다.

3) 주요사업과 업무

전통문화 발굴 및 기획, 국악발표회, 각종 국악예술제 개최 및 참가, 후진 양성, 국악의 대중화 사업을 하고 있다.

4) 활동사항

여수에서 열린 전국명창대회와 남도국악제를 주최하였고, 시조연구발표회, 소리사물발표회,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락 감상회를 개최하였다. 영당풍어굿, 상문살물리기굿, 현천소동패놀이, 현천용수제, 여수노동요 등 여수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였다.

5) 현황

2009년 현재 김향순 지부장을 비롯하여 부지회장 4명, 감사 2명, 이사 11명 등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9. 사단법인 어울림

1) 설립목적

장애우의 예술적 기량을 개발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퓨전 예술단을 설립하였다.

2) 변천

2008년 12월 여수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년 10월 15일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였으며, 사무실은 신기동 13-2번지에 있다.

3) 활동사항

제1·2회 크로스오버뮤직과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4) 현황

서현곤(이사장), 이연신(상임이사)외 이사12명, 김해룡(사무국장)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위원회(재즈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힙체어 댄스 스포츠, 중창단)와 문화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분야별 현황

1. 성악가 및 작곡가

2009년 현재 여수출신 성악가로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관동대 성악과 교수이며 학장을 역임한 바리톤 이무웅(남)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심인성(남)이 있으며, 작곡가로는 장정익(남) 서울대 교수가 있다.

2. 대중가요

표1. 여수출신 작곡가 및 가수

번호	분 야	본 명	예 명	앨범 또는 데뷔곡	데뷔년도
1	작곡가	김강곤	고니		
2	가 수	정 원		허무한 마음. 미워하지 않으리.	1969
3	·	김란영		살랑살랑. 카페모음집 등	1973
4	·	주병선		칠갑산	1988
5	·	강지호		사랑이란	1993

6	가 수	이태이		기도 드리리, 너를 위해서라면	1980
7	·	김진현	칠복이	청춘브라보	2006
8	·	이수정	바나나보트 멤버	놀아봅시다	2006
9	·	김소량		To mama	2007
10	·	이민진		For diva	2007
11	·	김진현	칠복이	내 여자가	2007
12	·	이 찬		The outset	2008

표2. 여수를 주제로 하는 가요

번호	노 래 명	가 수	작 사	작 곡	발표년도
1	꽃피는 여수바다	이미자	천 봉		
2	내 고향 여수항	예 진	이수원	최 성	1997
3	내 사랑 여수항	임정아	오민우	오민우	1995
4	내 사랑 여수항아	황해수	오민우	오민우	2001
5	다시오마 여수항아	이용복	김동찬	손 현	2003
6	동백꽃 피는 항구	이미자	임희재	박춘석	1965
7	사랑찾는 여수항	남수련	장경수	황성우	
8	서울-부산-광주-여수	권성희	길옥윤	길옥윤	1982
9	여수 부르스		강석오		
10	여수 아리랑	이태이	이태이	이태이, 김인호	2008
11	여수야화	남인수	김 건	이복룡	1949
12	여수야화	남수련	반야월	박시춘	
13	여수처녀	은방울자매	고 항	남국인	1975
14	여수항아	수아	김화경	김화경	2000
15	여수행 최종 연락선	조항제	이병주	이병주	2002
16	오동도 사랑	지상희	박성훈	김인철	
17	오동도 아리랑	이하림			1989
18	잘있거라 여수항아	전형진	김동찬	김수환	

3. 민요¹²³⁾

여수는 지역적으로 바다와 연해 있고, 얼마간의 농토가 있어서 어업요와

노동요 뿐만 아니라 아녀자들이 부르는 '베틀가' 등이 발견되고 있다. 어업요와 농업요의 경우 바다와 들에서 각기 따로 불렸으나, 경우에 따라 혼재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 노동요

노동요는 일의 고달픔을 잊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흥이요, 일꾼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표출해 내는 창구이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행동을 통일시켜 주는 구령이기도 하다.

또한, 사실을 통해 작업을 독려하거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수의 노동요는 크게 어업노동요와 농업노동요로 나뉘는데, 공동작업인 경우에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혼자서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노동에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어업노동요는 '거문도 뱃노래', '거문도 술비소리', '승선가', '전어잡이노래' 등이 전해 오며, 농업노동요의 경우 '결망개 들노래', '현천소동패놀이' 등이 있다.

2) 의식요

의식요는 대체로 장례의식요, 세시의식요, 신앙의식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례의식요는 '상여소리', '달구질 소리'로서 노랫말은 대체로 인생무상을 한탄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회심곡류'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세시의식요는 지신밟기는 서낭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로 '지신밟기 노래'와 '고사요' 등이다. '지신밟기 노래'는 가정의 태평을 빌고 풍년이 들어 농사가 잘되리라는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앙의식요는 믿음을 중시하는 노래이다. 이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치중되는가에 따라 불교에 근거하면 불교의식이요, 무속신앙에 근거하면 무속의식요, 민간의 일반 속신에 근거하면 속신의식요로 분류된다.

무속의식요는 '바깥굿의 무가'나 '안굿 무가'와 같이 무속의식에서 불리는 모든 노래가 이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속신의식요는 민간의 속신관념에 따른 노래로 '상량 노래', '고사 축원가', '액뱃이 소리' 등을 꼽을 수 있다.

3) 유희요

놀이와 양상과 연희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연행되는 세시유희요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일상유희요라 하겠다. 세시유희요는 세시의 본질적인 민속적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풍요와 다산을 예측하거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형태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여수의 대표적인 세시관련 유희요에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부르는 '달이 덜렁', 화전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제화 좋소'가 있다.

표 3. 여수의 대표 민요

번호	행정구역	민요명	번호	행정구역	민요명
1	전지역	달이덜렁	24	삼산면	제화 좋소
2	·	호국노래	25	·	액맥이 소리
3	·	어부노래	26	남면	노동요
4	·	벧노래	27	·	길쌈요
5	·	정노래	28	·	만가
6	·	상은노래	29	·	상아지 타령
7	·	치정노래	30	·	기타잡가
8	·	창옷노래	31	화정면	베틀가
9	·	노래가락	32	·	시집살이 노래
10	·	원호명 민요(호명동)	33	·	각설이 노래
11	·	승선가(적량동)	34	·	내방노래
12	·	상량노래(적량동)	35	·	이별노래
13	·	고사출원가(미평동)	36	·	목화따는 처녀노래
14	·	혼인노래	37	·	자장가
15	울촌면	화투타령	38	·	만가
16	화양면	화양가	39	·	잡가
17	·	화양일주가	40	·	은실타령
18	·	상사소리	41	·	호호타령
19	·	바깥곳의 무가	42	·	애도가
20	·	안곳 무가	43	·	효행가
21	소라면	소동패놀이	44	·	여자도 새우잡이 노래
22	·	걸망개 들노래	45	·	정구대항 응원가
23	삼산면	거문도벧노래	46	·	백지 옥정 선수들 응원가

4. 판소리

1) 1950년 이전

1950년 이전 여수 명창들의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세습무가(世襲巫家) 집안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전라좌수군의 악대인 취타군청(吹打軍廳)이나, 신청(神廳), 악공청(樂工廳)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거문도벚노래로 유명한 김창옥이다, 그의 아버지인 김태삼도 무속인이면서 풍물의 명인으로 남사당에서 활동하였던 유명한 소리꾼으로 그의 시김새는 음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⁴⁾

124) 손웅, 「김창옥과 정경용의 거문도 벚노래 소리 비교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2) 판소리 전수단체

(1) 여수국악원

여수지역 판소리 전수단체 역사는 1951년 여수 국악동호인 70여명이 송이종(宋二鐘)을 중심으로 동호인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55년에 오창영(吳昌永)이 근자동 속칭 들다리 옆 한옥 세 칸에 사설 여수국악원을 개설하면서 판소리도 시작 되었다. 그러나 언제 폐원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2) 예림마당

1987년 10월 15일 김향순이 미평동 592-2번지에 후학들에게 판소리 등을 전수하기 위해 예림마당을 개설하여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3) 제정화전통음악연구소

2009년 1월 제정화가 문수동 123-1번지에 동초제 등을 전수하기 위해 제정화전통음악연구소를 개설하여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3) 여수의 소리꾼

198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전라남도국악실태조사」를 보면, 김우남(여), 김재황(남), 정홍수(남), 김영옥(여), 김향순(여)등이 소개되어 있다. 김영옥과 김향순은 지금도 활동 중이며 모두 동편제를 잇고 있다.

김향순은 동편제 홍보가로 2006년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1호로 지정되었다. 여수출신 소리꾼으로는 조상현·송순섭에게 사사받고 남원국립국악원에서 단원으로 활동했던 배기수(남, 1970)와 김향순 → 방성춘에게 사사받아 전남도립국악단에서 활동 중인 박미정(여, 1971~)과, 김향순 → 성창순에게 사사받아 광주시립국악단에서 활동 중인 정선심(여, 1971~), 선동옥 → 방성춘·안숙선에게 사사받아 동초제를 전수하고 있는 제정화(여, 1972~)가 있다.

또 김향순에게 사사받아 여수시립국악단에서 활동 중인 김영화(여, 1979~), 이시원(여, 1981~), 박윤희(여, 1983~)가 있고, 그 외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송보라(여, 1982~) 등이 있다.

5. 기타

이화여대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여 음악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최 진(여, 1969년~)은 2006년 제16회 김해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 손 용, 「김창옥과 정경용의 거문도벚노래소리 비교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1982.
 한국예총 여수지부, 『여수예총40년사』, 2003.
<http://yeosu.grandculture.net>

제 3 장

미술 · 공예 · 서예 · 사진

유 상 국 (전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장)



제1절 미술

1. 여수 회화의 원류

한국 근대양화의 역사적 시작은 1910년에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하여 서양화를 배운 고희동으로 볼 수 있다. 호남근대화단의 선구자는 여수 만성리 출신의 김홍식(1897 ~ 1966)으로 동경미술학교에 1923년에 입학하였다. 호남에서 최초로 서양화가가 된 김홍식은 호남 근대화단의 개척자로 이름 높은 오지호와 함께 남도미술의 원류에 큰 물줄기가 되었다.

1989년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동경미술학교 43인의 얼굴전'과 1995년 '전남미술오십년전'에 작품이 공개되면서 서서히 김홍식의 작품이 알려지게 되었다. 2002년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남도 문화 원류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그의 작품을 재조명하면서 언론 매체로부터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2000년 2월 광남일보 김옥조 기자가 쓴 「전남지역 양화의 선구자 김홍식에 관한 연구」¹²⁵⁾라는 논문은 김홍식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로 김홍식이 한국 근대회화의 선구자라는 점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김홍식과 함께 여수출신 화가로 박근호(1902~?)가 있었는데 서울 배재고등학교 3년 수료 후 동경미술학교에 진학했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제 10회와 제11회 입선했으나 광복 이후 화단활동이 알려진 게 없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 1950년 전 후 세대



▲ 유경채 《해바라기》 1953년작

유경채는 돌산 출신으로 1950년대를 전후해서 김홍식의 뒤를 잇게 되었다. 그는 1941년 동경 녹음 사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창작미술협회 회원으로 국전을 중심으로 서정적이며 반추상적인 추상적 양식화를 시도한 작가들의 모임에 소속되었다.

그는 제 1회 국전에서 〈폐림지 근방〉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1956년에는 국전 추천 작가로 추대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여수 미술은 1960년대 사범대학을 나온 미술선생님들이 도화시간에 그림을 가르쳤었다. 이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성장하여 한국 미술의 성장기인 1980년대, 1990년대에 여수 지역에서 중추적 화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3. 여수 미술협회 창립

김용복을 중심으로 한 순천사범학교 출신과 광주사범학교 출신 동호인들

이 1966년 2월 '여수미술협회'를 결성하였다. 초창기 여수미술협회는 초대회장 김용복을 비롯해, 신승우, 박봉화, 이봉순, 장지환, 하인택, 정형수 등이 주요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수미술협회의 제1회 전시회는 1967년 7월 '종다방'에서 열렸는데 김용복, 신승우, 박봉화, 이봉순, 장지환은 유화작품을 하인택, 정형수 등은 수채화 작품을 출품했다.



▲ 김용복 <신의 소리>

제2회 전시회는 1968년 5월 중앙동 '황실다방'에서 열렸다. 여수미술전시회가 주로 다방에서 행해진 것은, 그 당시 마땅한 전시공간이 부재했던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도 활발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여수미술협회는 1968년 제1회 여수학생미술사생대회를 진성여고가 있는 서당산에서 개최하였다. 이 여수 학생미술사생대회를 계기로 일반인들의 그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

제3회 여수미술협회 회원전이 1969년 6월에 황실다방에서 12인이 출품한 가운데 열렸는데, 이때 제2대 회장으로 신승우가 선임되었다.

1970년 이후 지역의 협회 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협회 회원에 미술 전공자들이 가세하게 된다. 하태홍이 서라벌예대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국전과 구상전에 공모하게 되면서 여수미술협회의 공모전 응모가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당시 국전에서 입상하는 것은 미술인들의 경사 중의 경사였다.

4. 여수 회화의 르네상스

1970년대 초반 여수미술협회 서양화 전공 회원들이 국전에 출품하여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때 출품한 작가는 신승우(양화·작고) 강창구(양화) 이상순(양화) 하태홍(양화) 서봉한(양화) 임영기(양화·작고) 이봉순



▲ 강종래 〈해변의 정〉 144×107cm 1981년(국전30회) 특선작

(양화·작고) 등이다.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도 강창구(양화), 박정간, 전종주(목인 서예가) 등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전은 이후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일남, 정재종, 유상국, 박찬석, 이민하, 권진용 등이 입선을 하였다.

1976년 김정자(서울거주·구상전회원)가 구상전 전국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여수미술의 구상회화는 하태홍, 김정자, 손상기, 유상국으로 이어지면서 여수미술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고 다양한 미술의 표현 방법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구상전에서 이민하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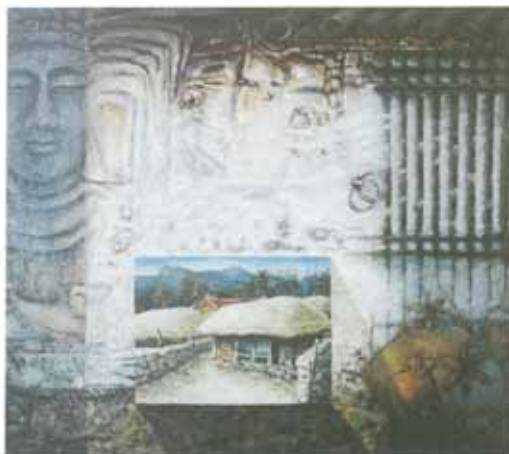
1982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강종래의 '해변의 정'이 특선을 차지하였다. 당시 동양화(현 한국화) 심사위원장은 동·서양화가 접목된 새로운 기법의 채색화의 등장이라 평하였다.

1980년대의 여수미술은 제24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주일남이 종합대상(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여수회화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수고등학교 출신으로는 하태홍, 박정간, 이우평, 박병욱, 김충조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유명한 만화가로는 '타짜', '식객', '꼴' 등으로 친숙한 허영만과 서울신문 만평작가로 백무현이 대표적이다.

홍진삼 화백의 지도로 여수상업고등학교 미술부에서는 강종래, 김해곤, 명노만 등이 수채화를 주로 그렸다.

그리고 김충조(국회의원)는 여수 최초로 '한길화랑'



▲ 주일남 〈백 99-8〉 90.9×72.7cm oil on canvas

(1980년)을 운영하여 여수지역 화랑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후 석영화랑과 몇 개의 화랑이 개관하기도 하였다.

5. 교류전과 고교 동문전



서단법인한국미술협회여수지부

1983년 12월 여수미술협회와 마산미술협회의 교류전이 마산의 가야백화점 전시실에서 시작된 이래로 2008년 10월 15일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시까지 26회의 교류전이 이루어졌다.

초창기 때부터 실시해 온 사생대회와 여수지역의 각 학교의 동문전시회는 여수미술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수고등학교 동문미술전(초대회장 김인식)이 1984년

8월 23일 중앙동 로터리 다실에서 열렸다. 회원은 강창구, 김충조, 이우평, 한충섭, 김병호, 유상국, 장창익, 황성찬, 박찬석, 이근택, 김종태, 임동택, 유현국, 정재열, 김주호, 김복동, 황대옥, 편무평, 오영환, 전충수, 이신경, 전우경, 최광우, 박동화, 정창균, 이종필, 이현영, 정기준, 공원표, 김영도, 이성철, 최승남 등이다.

여수여자고등학교 미술동문전인 '여주전'은 초대회장을 이신자가 담당한 이래로 좋은 작품들이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회장은 이미경이다. 회원으로는 이신자, 박옥임, 김선자, 김향숙, 김경애, 김양자, 정신우, 김미연, 정향숙, 권하주, 변정옥, 김영엽, 광인화, 이미경, 이은경, 김태희, 백선순, 서봉희, 양수균, 손정선, 정옥희 등이다.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동문들은 1991년 '중앙미전'을 창립하고 초대회장 강복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9회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

다. 회원으로는 고미정, 김은희, 류윤숙, 박미경, 심은아, 서지숙, 윤정인, 유정, 이경진, 임영란, 임희진, 최은복, 김남희, 조현희, 김미군, 김선미, 강선영, 박미, 정유미, 황현주, 문현희, 서경주, 박선영 등이다. 이들 고교미술동문들 년1회 이상 꾸준히 동문전을 개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6. 공모전의 성과

1986년 강종열이 제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뒷골목'으로 특선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서 이민하, 정창균, 이존립, 정원주 등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며 대를 이어가고 있다.

강종열은 학창시절 여수지역 미술부를 규합하여 '소라회'를 결성하였다. 여수지역의 학생 미술을 이야기 할 때

이 '소라회'를 빼 놓을 수 없다. 손상기(여수상고) 최기섭(여수고) 정경훈(여수고)

등의 회원들은 서당산을 중심으로 수채화를 열심히 그렸다.

80년대 여수미술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손상기의 출현이다. 손상기는 구상전이란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데뷔한다. 여수 상업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업작가로 활동하던 중 1988년 39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

최근 손상기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손상기 작고 20주기 기념전이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미술부 활동은 그 뒤에도 양해웅, 권하주, 장창익 등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 강종열 <뒷골목> 145×112cm 캔버스+유채 1984년작



▲ 손상기 <신음하는 도시>

7. 여수청년미술작가회 창립

1996년 11월에 '여수청년미술작가회'가 창립되자 여수·여천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였다.

청년미술작가회의 발기인으로는 이존립, 이민하, 박동화, 정재열, 전우경, 박치호 등이며, 이들은 여수지역 청년미술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12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진주·순천 청년작가들과의 합동전, 10x10m전, 판화, 드로잉, 에스커스전 등 미술 전반의 장르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회원으로는 강진희(양화), 권진용(수채화), 정경훈(수채화), 김선미(양화), 김옥진(양화), 김종균(도예), 박동화(양화), 박치호(양화), 서국화(양화), 손정선(양화), 이창훈(양화), 최재용(조각) 등이 활동하고 있다.

1998년에는 삼려통합을 계기로 여천지부와 여수지부로 분리됐던 체제가 통합되어, 1대 지부장에 유상국이 취임하였다. 이후 여수미술협회는 거리미술제, 환경 설치전, 아트샵, 벼룩시장, 퍼포먼스, 기념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4년 3월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미술 조명전'이 열렸다. 200여명의 아마추어·프로 작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전시회였는데 여수미술의 대부라 할 수 있는 김홍식을 비롯한 유경채, 손상기, 임영기, 신승우 등 작고 작가와 미협회원과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여수시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8. 민족미술인협회 출범

1994년은 미술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고 현실 참여적인 모습으로 외연을 넓혀가는 모습이 여수지역의 미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수미술협회에 이어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가 결성되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1994년 3월 19일 윤석현 위원장 등 9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따뜻한 눈으로 현실의 모순과 민중의 삶의 모습을 노정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여수미술의 방향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1년 여수·통영 교류전을 시작으로 동·서미술 교류전(2002, 진주), 겨울바다의 추억전(2005, 진남문예회관), 움직이는 작은 미술관(여수공항라운지) 등 뜻 깊은 전시회가 계속되었다.



▲ 채열 <손가락 총의 공포> 230 132cm 캔버스 천에 아크릴 2006

9. 국제아트페스티벌



▲ 2008년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여수에서 열린 제44차 전국지회미협지부장단 회의는 여수미협 지부의 위상과 관리능력이 높아졌음을 알리고 작가와 지역이 연계하면서 새로운 미술문화를 창조하는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작은 도시

지만 그만큼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 큰 의미이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2008년 8월 30일 부터 9월 18일 까지 여수미술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작가의 역량 확대라는 목표 아래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열렸다.

국제아트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작가 300 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50 여 명 외국작가의 회화, 사진, 조각, 영상, 미디어 등이 전시되고 '한국미술의 위상전', '한국현대미술의 동향전', '한국의 리얼리즘', '엑스포 조각전', '거리배너 작품전', '바다 그리고 꽃과 빛 전', '새로운 제안 여수전', '작가 오픈 스튜디오 투어' 등 다양한 전시가 행해졌다.

강종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수민족미술협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이 행사를 치렀으며, '2012여수해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여수시가 재정지원을 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인 라울자무디오(Raùl Zamudio)가 전시회를 기획하였으며, 여수시민들이 세계적 작가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0. 출향작가

1) 서양화가 황순철

황순철은 1955년 소라면 내기마을에서 태어나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고인돌마을(116.7×91cm)로 대상을 수상했다.

남도 예향화단에서 허건이 1944년 제23회 조선(朝展) 동양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8·15광복이후 국전을 거쳐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50년만이다.

황순철의 미술대전 대상은 예향미술계의 현대미술사 1백여 년의 역사에서 서양화부문 최초의 쾌거이고 예향화단의 위상을 한국미술사 중심에 올려놓았다 하겠다.



▲ 고인돌 마을 / 황순철(116.7×91cm) 1995 제14회 미술대전 대상작



▲ Kinetic-99, 50×20×65cm, BRONZE, 1999.

2) 조각가 김대길

김대길은 전국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한국30대중견작가 22인 초대전(동승미술관), '88한국정예작가 신작초대전(연희미술관), 한국조각가 200인 초대전(선화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2012여수세계박람회 자문위원이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이다.

미술협회 여수지부 회원

부 문	이 름
서양화	강종래, 강종열, 강창구, 권진용, 권하주, 김경훈, 김상선, 김선미(A), 김선미(B), 김옥진, 김용일, 김종철, 김찬식, 김태희, 김혜원, 문경섭, 박동화, 박란희, 박복란, 박봉화, 박치호, 서지숙, 손정선, 송대옥, 심은아, 양수근, 양해웅, 오연택, 유상국, 이기래, 이미경, 이민하, 이울배, 이정자, 이준립, 이형모, 정재중, 정정복, 조일남
한국화	김오곤, 김은희, 김현주, 문홍순, 박찬석, 방찬주, 박해경, 백선아, 서국화, 신경욱, 오복동, 정원주
문인화	변정애, 손치영, 황주일
서예	김성숙, 문갑출, 문인식, 박정명, 서명덕, 서천석, 송완훈, 송전석, 신진기, 이병국, 이정철, 정여춘, 최승수, 홍주열
공예	조용규, 변정옥
조소	박영한, 최재용
도예	김종균

민족미술인협회여수지부 회원

부 문	이 름
서양화	김태완, 박종선, 서봉희, 이은아, 이해영, 정채열
한국화	박진희, 안철수
조각	윤석우, 임영옥
디자인	정옥희, 최선화
공예	이은이, 지주란
만화	김동수

• 여수미술협회 연혁

- 1966년 2월 : 여수미술협회 창립 (초대회장 김용복)
- 1967년 5월 : 제1회 여수미술협회 회원전 개최 (황실다실)
- 1976년 5월 : 창립 10주년 회원전과 9회 학생사생대회
- 1983년 4월 : 한·일 미술교류전과 제16회 학생 사생대회
제1회 한국미협 여수·마산합동전 (마산가야백화점전시실)
- 1991년 10월 : 제1회 여수·순천미협 합동전, 제15회 여수예술
- 1995년 5월 : 제1회 여수 미술제 (진남문예회관)
제1회 전국바다사생대회 (돌산공원)
- 2001년 10월 : 제1회 통영 여수 교류전 (진남문예회관)
- 2008년 8월 ~ 9월 : 국제아트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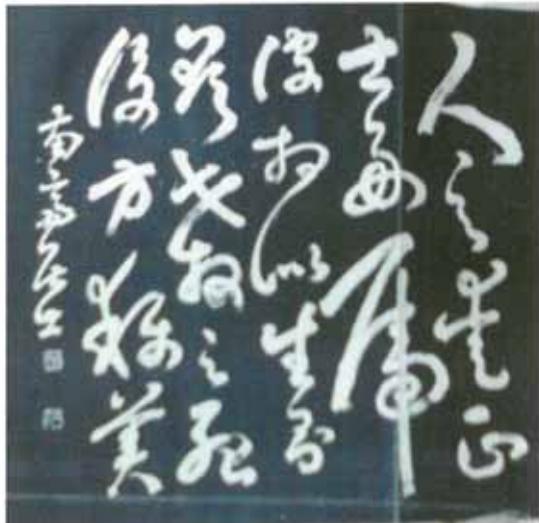
• 민족미술인협회여수지부 연혁

- 1994년 3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수지부 창립 미술위원회(9명)로 출범
- 1995년 4월 함께 꿈꾸는 세상전 (여수상호신용금고 전시실)
- 2000년 12월 아름다운 여수 2000년展 (여수 인사동 갤러리)
- 2001년 1월 회원 발의로 여수민족협의회(15명) 단체로 발족
- 2003년 9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여수지부(18명) 창립대회
- 2008년 4월~10월 2009 옴니버스 아트 쇼 (주제 : 내가 바라보는 세상- 210일간의 예술여행)
- 2008년 8월 2008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제2절 서예

1. 여수의 서예

여수서예의 제1세대는 석우 김상현과 그 문하생인 추수 김중호이다. 석우 김상현은 여수 최초의 일본 유학과 서양화가 김홍식의 조부이다. 그는 진남관 현판과 여수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현판을 썼다. 1881년에 진성여자고등학교 아래 서당 '봉명재'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 남재 송전석 초서작품

월산 정영철(1895~1966)은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해강 김규진(金圭鎭)의 밑에서 서예를 배웠다. 국전에 수차례 입선하였고 1965년과 1966년 두 해에 걸쳐 전남도전의 서예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추수 김중호는 1916년 남성재 훈장을 시작하여 많은 서예가를 배출하였다. 그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팔분체 등에 능하였으며 유작으로 한산사 현판, 군자정, 충무정, 백련사 극락전 현판이 남아있다. 초서에 능한 일정 정우종은 김중호의 문하생으로 진남관 망해루 현판을 썼다. 일정 정우종은 국전 심사위원과 전라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일정서실을 운영하여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현재 활동하는 국전 작가로는 송전석, 전종주, 박정명, 박상임, 전종구 등이 있다.

남재 송전석은 전라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남재서실을 운영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목인 전종주는 호남대학교 교수, 전남예총회장, 전라남도 문화상 심사위

원, 전라남도 문예진흥위원,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토의 전종구는 대한민국서예대전심사위원을 역임한 대한민국서예대전초대작가이다.

도정 박정명은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사진대전에 5회 입선, 전라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한글 서예작가로 눈뿔 박상임은 전라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2. 전국서예인휘호대회 개최

여수서도회는 1970년 창립하였으며, 초대회장은 정기로였다. 제1회 전국서예인휘호대회는 제 4대 회장 송석 김득평의 재임 중 1977년 8월 7일 진남관에서 원곡 김기승을 심사위원장으로 초대하여 개최했다.

제2회 전국서예인휘호대회는 제5대 회장 장봉균 회장 재임 중 1979년 8월 12일 여수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일중 김충현과 근원 구철우를 공동심사위원장으로 초대하여 개최했다.

제6대 회장 동춘 조충현 회장 재임 중 1981년 8월 8일 제3회 전국서예인휘호대회를 여수고등학교에서 학남 정항섭을 심사위원장으로 초대하여 개최하였다. 그 후 1998년 5월 5일 진남제 32회부터는 여수시서예연합회 주최로 전국서예인휘호대회가 2006년까지 개최되었다. 2007년 여수거북선대축제부터 전국서예인휘호대회가 폐지되었다.

3. 한중교류전

여수시와 중국 위해시 간의 교류는 1998년 11월 여수여자고등학교와 위해시간 농구교류에 대표로 참가한 가운데송과 여수서예인연합회장 송전석이 상호 교류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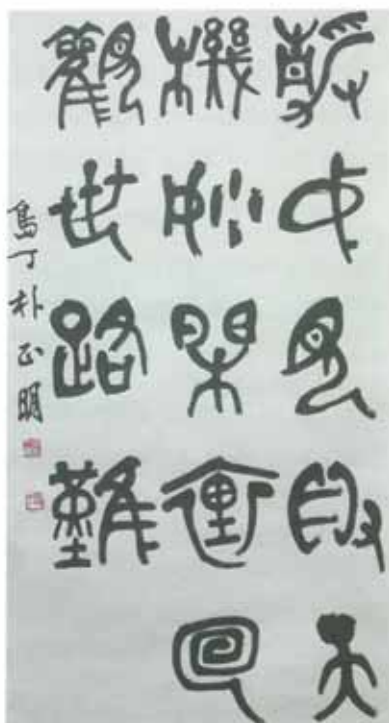
여수시와 항주시간의 교류는 1999년 여수시와 항주시까지 확대하기로 하여 시작되었다. 여수서예인연합회는 1999년 3월 16일, 서예 교류 및 민간 차

원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국 미협, 한국 서협, 한국 서가협, 한국 고시협 등의 많은 재여 서예단체가 호응하여 창립하였다.

제1회 한·중 서예 교류전은 1999년 9월 중국 위해시, 2000년(제2회)은 여수시, 2001년(제3회)은 중국 항주시, 2002년(제4회)은 여수시, 2003년(제5회)은 중국 위해시, 2004년(제6회)은 중국 항주시 소산구, 2005년(제7회)은 여수문예회관, 2006년(제8회)은 위해시 사정으로 여수에서 작품전만 하였으며, 2007년(제9회)은 위해시, 2008년(제10회)은 여수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4. 주요 공모전 초대·추천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묵인 전종주, 추원 최인수, 눈피 박상임, 우봉 이정철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 남재 송전석, 덕암 이종옥, 금곡 최승수, 미당 정여춘, 문산 송완훈, 무창 이해근
- 대한민국서예협회 초대작가 : 도정 박정명, 온길 정광섭, 청설 서명덕, 석촌 오상달, 일현 고상준, 토의 전종구
- 전라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 남재 송전석, 석촌 오상달, 내산 황의근, 도정 박정명, 눈피 박상임, 휴정 최문규, 이정 최문자, 춘강 이희성, 덕암 이종옥, 매성 문인식, 시농 김동규, 청하 김영숙, 불휘 박미경
-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 문산 송완훈, 금곡 최승수, 우봉 이정철, 온길 정광섭, 약송 문갑출, 춘훤 이상모, 문강 주병호, 청설 서명덕



▲ 도정 박정명 작품

5. 출향작가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출향 서예가로는 호남대학교수인 목인 전종주, 광양의 토의 전종구, 경남 사천의 일현 고상준이 있다.

제3절 사진

1. 여수사진작가협회 창립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수지부는 1976년 11월 20일에 출범하였다. 중심 회원은 김성환, 민병태, 서병렬, 이종철, 장기철, 장기태, 정완기, 장종익 등이다. 1976년은 여수 예술 사진의 역사성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현재 세계적인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 '배병우'라는 유명 사진작가의 출현과 더불어 그동안 수많은 작가를 배출해 온 사진협회의 활동은 사실 일찍 예술사진에 대한 여수지역 사진예술가들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근간은 1959년 10월 2일 창립된 '여수사우회(麗水寫友會)'의 활동이었다. 당시 사우회의 멤버로는 김준상, 김정훈, 남차식, 남산만, 박영석, 박삼봉, 반충남, 신달영, 유상중, 이창환, 장완기, 천동문, 최기영 등이 참여하였다.

여수사우회는 1959년에 시내 용궁다방에서 창립기념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61년 9월 중앙동 녹음다실에서 여수시와 남미 '텍빌시'와의 자매결연 기념 사진 교환전시회를 열었다. 두 번째 여수 사우회 사진전은 1969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시내 녹음다실에서 열었다.

2. 여수 선데이 카메라 클럽 창립

1971년 10월 11일 '여수 선데이 카메라 클럽'이 여수문화방송 상무인 허승현이 여수사우회에 합류하여 결성되었다. 회원은 장기철, 장기태, 김성환 등이다. 한국일보사 사진부 기자였던 민병태¹²⁶⁾가 귀향하면서 더욱 활성화된

다. 선데이 카메라 클럽은 1974년 11월 20일 '여수사진동인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을 이어갔다.

3. 여수사진협회

여수사진협회는 여수연합사진전, 여수지부회원전, 전남사단합동전 등과 더불어 미항 여수 전국사진공모전, 거북선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여수사진협회는 김원규 지부장, 김준현 사무국장이 이끌어가고 있으며 역대 지부장은 초대 장종익(1976~1979), 제2대 장완기(1979~1981), 제3대 서병렬(1981~1984), 제4대 민병태(1984~1986), 제5대 장기철(1986~1988), 제6대 신근호(1988~1990), 제7대와 8대 김성환(1990~1994), 제9대 서승룡(1994~1996), 제10대와 제11대 장영식(1996~2000), 제12대 한창호(2000~2003), 제13대 박중배(2003~2005), 제 14대 이환규(2005), 박광수(2005~2007), 제15대 김원규(2007~현재) 등이다.

4. 사진동호회

여수지역 주요 사진동호회는 여수 사진동우회(회장 이석재), 1980년대 창립된 여수 포커스 사진클럽(초대회장 주낙운), 1983년에 창립된 여수 쪽빛 사진동우회(초대회장 위선복), 1993년에 창립된 여수 B&C 포토클럽(초대회장 정명은), 1997년 창립된 동백사진동우회(초대회장 김종인), 2002년 5월 10일 창립된 여수 디카(초대회장 김동현), 2006년 3월 13일 창립된 포토 어울림(초대회장 정병식) 등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여수 예술사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국립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진방을 개설하여(지도교수 민병태) 지금까지 3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여 일반인들에게 예술사진의 멋스러움을 일깨워주면서 사진의 대중성에 앞장서고 있다.

5. 출향 작가

1) 사진작가 배병우



▲ 배병우 작품 『소나무』

‘미스터 파인 트리’가 별명인 배병우는 종묘, 창덕궁, 등 한국의 왕릉과 앙코르 와트, 아랍 브라궁전 등의 사진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이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의 작품은 한국에서 보다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소나무, 바다에 이어 남해안이 그의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 만화가 허영만

허영만의 본명은 허형만으로 1947년생이다. 여수고를 졸업하자 서양화를 전공하여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스포츠조선에 『타짜』, 『사랑해』 등을 연재했고, 동아일보 연재만화에 음식을 소재로 한 만화인 『식객』을 연재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날아라, 슈퍼보드』는 단행본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스팔트 사나이』, 『비트』, 『타짜』, 『식객』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다.

3) 만화가 백무현

백무현은 서울신문 편집부 화백으로 『만화로 보는 한국현대사』, 『만화 박정희』, 『만화 김대중』 등이 대표작이다.

만화이야기

허영만 작품



▲ 『식객』 표지

- 『각시탈』 1975년
- 『무당거미』 1981년
- 『카멜레온의 시』 1986년
- 『고독한 기타맨』 1987년
- 『오 한강』 1987년
- 『벽』 1988년
- 『미스터 손』 1989년
- 『아스팔트 사나이』 1992년
- 『비트』 1994년
- 『세일즈맨』 1994년
- 『미스터 O』 1994년
- 『사랑해』 1999년
- 『타짜』 1999년
- 『식객』 2002년~2010년
- 『고마대장 망치』 2004년~
- 『해머보이 망치』 2004년
- 『부자사전』 2005년~
- 『콜』 2008년~
- 『날아라 슈퍼보드』 1990~

제4절 공예

이 정 현 (여수시 학예사)

1. 전통 가구

1) 개관

주생활에 있어서 가구는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가구는 가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양식과 형태가 다르게 형성된다. 가구는 실내공간에 배치되기 때문에 가구의 규모는 당시의 주택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장롱, 반닫이 등 전통 목가구는 오늘날 기성가구와 비교하여 볼 때 크기가 작은 편인데 이것은 당시 가옥의 실내공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다량 생산된 기성가구가 보편화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지역의 소목장들이 제작한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달랐다.

소목장들은 주문을 받아 가구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주문자의 취향에 따라 같은 소목장이 제작하더라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 소목장은 관아의 수요를 공급해주는 관공장(官工匠)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공장(私工匠)이 있었다. 1847년에 발간된 호좌수영지에 목수(木手), 칠장(漆匠), 관목수(官木手), 나전장(螺鈿匠), 피철장(皮鐵匠) 등 관공장(官工匠)의 종류와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전라좌수영에는 관공장(官工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벌써 이 시기의 조선시대 수공업 체제는 관영수공업이 약해지고 많은 장인들이 사공장(私工匠)화 된 소목장들이 자유롭게 가구를 생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던 때이다.

여수지역에서의 수공업 종사자는 좌수영에 속해 있는 관공장(官工匠) 출신이거나 사공장(私工匠)일 가능성이 높다.

여수지역의 목가구라고 특정지어지게 된 것은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데다 이 곳에는 소목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여수의 반달이와 윗달이

여수에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가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달이와 윗달이다. 지역적 특성이 있는 가구들이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나 소멸 시기는 1900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 여수-순천 간 신작로 개설과 1930년 여수-순천-광주 간 경전서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다량 생산된 기성가구와 장식들이 유입되었는데 이전의 무쇠 장식 대신에 황동, 백동 등 합금으로 장식된 가구와 장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합금으로 장식된 기성가구의 유입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소목장들의 수주물량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도로 개설과 철도 개통이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소목장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통공예가 단절되는 결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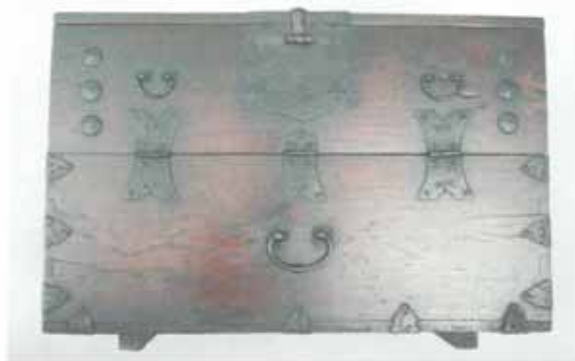
여수에서 활동하던 소목장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각 가정의 실내공간에는 기성가구가 전통가구를 대신하게 되었다. 1900년대 이후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전통가구는 오래된 물건으로 인식되면서 소실되기 시작하였다. 남아 있었던 몇 안 되는 전통가구마저 외지로 반출되었다.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목가구는 우리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화재급이 되어 버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수반달이가 우리 지역에 1~2점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다.

가) 여수 반달이

반달이란 장방형의 나무상자를 가리키는데 문판이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앞달이' 또는 앞에 있는 문판의 반이 열리고 닫힌다고 해서 '반달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 가정에서 반달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반달이



▲ 여수반달이(가로 81.5, 세로 35.5, 높이 55.0) 여수시 소유

를 소장하고 있었다. 반담이는 의류나 일용품 등을 보관하기도 하고 반담이 위에 이불이나 일용품 등을 올려놓기도 하는 등 가정에서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반담이는 보관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사랑방이나 안방 또는 대청 등에 놓고 사용하기도 한다.

전라도 남해안지역에서는 해남반담이, 장흥반담이, 광양반담이, 여수반담이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수반담이는 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앞널의 문판에 장석이 많은 편이며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2~3종류의 유형이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수지역에서는 여러 소목장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수반담이는 자물쇠앞바탕이 초형에 여러 가지의 문양이 투각되어 있고 경첩은 제비초리형에 투각된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판재를 결구시켜주는 감잡이가 여의두형·망두형·고추잎형이 많고 감잡이에 작은 구멍이 투각되어 있다. 또한 문판의 양쪽에는 각각 3개씩 유두형 또는 원형의 광두정이 있고 앞널에는 3개의 활형 손잡이가 있다.

사진은 여수에서 제작된 반담이다. 재질은 앞널이 느티나무이고 나머지 다른 널은 소나무이다. 장석으로는 3개의 제비초리형경첩, 앞널 문판 양쪽에 각각 3개씩의 원형의 광두정, 앞널에 3개의 활형손잡이, 양 측널에는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결구방식으로는 각 널의 판재는 사개짜임으로 제작되어 있고 앞널과 측널 그리고 앞널과 아랫널이 각각 망두형에 가까운 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반담이 내부 상단에 3개의 서랍이 있다.

나) 여수 윗담이

윗담이는 궤의 일종이며, 위에서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하여 '윗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윗담이는 족보, 서적, 문서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윗담이 중에서 규모가 작고 문판 중앙에 엽전이 들어갈 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돈궤라고 한다. 이것은 엽전 등을 보관한다.

여수윗담이의 특징으로는 열고 닫는 문판에 경첩이 없다. 그 대신에 문판 아래 양쪽에 반드시 긴 각목을 대는데 문판이 쉽게 이탈되지 않게 되어 있다. 각 널은 반담이와 마찬가지로 사개짜임으로 결구되어 있다.

여수윗달이에 있는 장식은 여수반달이 장식의 문양과 비슷하다. 자물쇠앞바탕은 초형에 문양이 투각되어 있고 문판 양쪽에는 각각 3개씩의 원형 또는 유두형의 광두정이 있다. 윗달이의 앞널과 측널, 앞널과 아랫널은 망두형 또는 여의두형에 가까운 형태의 감잡이가 장식되어 있다.



▲ 여수윗달이 (가로 75.0, 세로 42.5, 높이 37.0)

참고문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7.

김옥조, 「전남지역 양화의 선구자 김홍식에 관한 연구」, 2000.

대구서학회, 『서예란 무엇인가』, 중문출판사.

문선호,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 100인 선집』, 금성출판사, 1975.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여수지부, 『여수예총 사십 년사』, 2003.

이의선, 「조선후기 반달이의 지역 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pp123~127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 1982.

정대영, 『한국의 궤』, 동인방, 1993

제 4 장

연극 · 국악 · 연예 · 무용

김 경 식 (KBS한국방송공사 PD)



제1절 연극

연극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 전달하는 종합 예술이다. 여수 연극의 변천사와 발자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 이후 우리고장의 연극 활동은 악극단이나 가극단의 순회공연 정도만이 드물게나마 있었다. 1970년 중반까지도 각급학교의 학예회를 통한 학생극 정도가 간간히 행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1976년경 여수YMCA 내 소인극 모임 단체인 '아하'라는 극회의 「어둠을 뚫고」를 시발점으로 몇 차례의 자체 공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1981년 7월에는 황영현, 황정운, 곽경순 등이 주축이 된 '엑스트라'라는 극회가 발족되었다. 1981년 9월 23일 한국연극협회의 인준을 받았고, 동년 10월 17일 박희연이 연출한 유진 오닐의 「긴 귀향로」를 공연하였다.

1982년 '엑스트라'라는 극회의 명칭을 여수의 상징인 '동백'으로 개명하면서 우리고장 연극 활동의 주축을 형성해왔다. 또한 1982년에는 여수YMCA 소속의 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극단 '토방'도 결성되었다.

1986년에는 여수문화방송 PD였던 김영문,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였던 조영철 등이 주축이 된 극단 '문예극장'이 결성되었다.

게다가 1987년에는 전문 연극인들로 구성된 극단 '파도소리'를 강기호가 창단함으로써 1980년대에만 4개의 극단이 활동할 정도로 양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극단은 여러 개였지만 활동한 배우들은 거의 동일 인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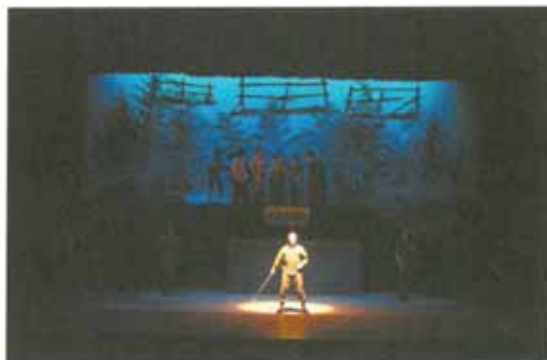
극단 '동백'과 '토방'은 1990년대 중반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각종 연극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극단 '토방'의 김명환은 향토성 짙은 「무인도 갈매기」, 「여수 부르스」 등을 직접 쓰고, 연출하여 제10회 전라남도 연극제에서 단체 우수상을, 제11회 전라남도 연극제에서는 희곡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또 1997년 전라남도 연극제에서 강기호의 창작 작품인 「성조황고」가 희곡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후 송은정의 「그들의 섬이 아니다」가 또 한 번 희곡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역 사회의 연극에 대한 관심 저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극단이 해체되었고, 현재는 극단 '파도소리'만이 유일하게 여수 지역 연극 활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93년에는 소극장 운동을 펼친 강기호가 신기동에 150석 규모의 '파도소리' 소극장을 개관하여 5년 정도 유지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2002년에는 극단 '파도소리'에서 「상화와 상화」로 전남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이 작품을 연출한 강기호는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극단 '파도소리'는 전남연극제에서 「작은 할머니」로 연출상을,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 「시월의 노래」에서도 강기호가 희곡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전라남도 연극제에서는 최우수단체상과 강기호가 희곡상을 수상하여, 전국연극제에 전남대표로 참가하여 단체 분야에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 전국 연극제 은상 작품

이러한 실적과 공로로 극단 '파도소리'는 2003년 여수시 문화상품 1호로 여수시와 공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다. 강기호 씨의 창작 희곡과 연출로 만들어진 작품 「용서를 넘어서 사랑」은 애양원 나병 환자들의 삶과 우리고장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방 극단으로는 드물게 70여명의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한 우리 지역 최대 대형 연극이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은 2004년 개봉 이래 서울을 비롯한 국내 20여개 지역과 미국 5개주 공연으로 20만 명의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여수출신의 대표적인 극작가와 연극인으로는 김정수(김정숙), 장유정, 염혜란 등이 있다.

김정수는 MBC TV 개국 10주년 드라마 공모전에서 '제 3교실-구석진 자리' (1979)가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하였다. 한국 농촌드라마의 대표작 '전원일기'를 비롯, '엄마의 바다', '그대 그리고 나'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드라마로 집필하였으며, 수상경력으로 2008년 제35회 한국방송대상 작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유정은 뮤지컬 작가와 연출가로 '송산야화' (2002)로 데뷔하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김종욱 찾기' 등이 있으며, 2009년 제3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사, 극본상을 수상하였다.

염혜란은 '최선생' (2000)으로 데뷔하였고, '차력사와 아코디언', 영화 '살인의 추억' (2003) 등에 출연하였으며, 수상실적으로는 제14회 히서연극상(2009)에서 '기대되는 연극인상' 등을 수상하였다.

1. 역대 임원

〈여수〉

1981년 8월 제1대 지부장 황영현, 부지부장 정태균, 사무장 박회현

1984년 2월 제2대 지부장 김연희, 부지부장 정태균, 사무장 이강영, 황정운

1987년 5월 제3대 지부장 김명환, 부지부장 조영철, 김정애, 사무장 강영란

1994년 3월 제4대 지부장 김명환, 부지부장 정태균, 강영란, 사무장 강기호, 이강영

1994년 4월 제5대 지부장 이원용, 부지부장 강기호, 사무장 오정석

〈여천〉

1996년 6월 제1대 지부장 강기호, 부지부장 이서영, 박숙경, 사무장 오미라

〈통합여수〉

1998년 3월 제1대 지부장 이원용, 부지부장 강기호, 정태균, 사무장 김수라

2000년 3월 제2대 지부장 강기호, 부지부장 이서영, 송은정, 사무장 김준영, 양은순

2002년 12월 제3대 지부장 강기호, 부지부장 정태균, 사무장 박유진

2006년 12월 제4대 지부장 강기호, 부지부장 이서영, 사무장 박유진

2. 주요 활동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장 소	출 연 자
긴 귀향로	유진오닐	박희연	여수극장	정태균, 황정윤 외 다수
그여자 사람잡네	장광일	이광기	목화예술극장	최준, 강기호, 김정미 외 다수
달 집	노경식	김명환	시민회관	강영란, 오정석, 강기호, 정태균, 강창곤 외 다수
여수부르스	김명환	김명환	문예회관	이강영, 강기호, 정태균, 김정미 외 다수
까치교의 우화	김상열	김영문	시민회관	황정윤, 강기호, 정태균 외 다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강기호	문예회관	이서영, 박숙경, 김정미, 김지연
그들의 생애	송은정	황정윤	시민극장	강영란, 강기호, 이서영 외 다수
성조항고	강기호	강기호	문예회관	이서영, 김정훈, 김두혁, 정태균
상화와 상화	최현묵	강기호	문예회관	강기호, 오정석, 김준영, 이서영, 박숙경, 정태균, 김지연, 박유진, 양은순 외 다수
오 돌 래	이용희	강기호	문예회관	정태균, 이서영, 김지연, 박유진, 양은순 외 다수
번지없는주막	김상열	강기호	시민회관	이서영, 정태균, 고단이, 양은순, 박유진, 김지연, 김정훈, 박상철 외 다수
작은 할머니	엄인희	강기호	문예회관	김지연, 이서영, 강기호, 김정훈 외 다수
용서를 넘어선 사랑	강기호	강기호	시민회관	정범길, 이서영, 정태균, 김정훈, 허상석, 박혜빈, 박영광 외 다수
시월의노래	강기호	강기호	시민회관	이서영, 강기호, 정태균, 고단이, 박숙경 외 다수
파도소리	강기호	강기호	시민회관	이서영, 강기호, 박창현, 정태균, 김태인, 고단이, 윤범호 외 다수
가시고기	장원경호	강기호	시민회관	윤범호, 이서영, 김충호, 정영민 외 다수

3. 회원

강기호, 이서영, 정태균, 이원용, 장진호, 고단이, 박숙경, 양은순, 박유진, 윤범호, 김정훈, 김영종, 김지연,곽정숙, 배종수, 박상철, 김태인, 강인호, 박혜빈, 오설은 외 (명예회원) 황정운, 정 훈, 강영란, 오정석, 오미라

4. 대표적인 연극 단체, 극단 파도소리

극단 '파도소리'는 연극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문 연극인 양성, 연극 활성화, 공연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극단 '파도소리'의 주요 공연 활동과 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용서를 넘어선 사랑」 강기호 작/연출

1987년 9월 서울사랑방 소극장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네」를 공연으로, 1993년에는 「신이 버린 여자」로 제1회 전국 작은 연극제에 참가하였다. 또 1997년 「신도둑 신도둑」으로 마산에서 개최된 전국 연극 축제에 참가하였고, 2007년에는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누가 누구?」를 공연하였다.

현재 지역 및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으며, 전남연극제 장려상 3회, 전남연극제 우수상 3회, 전남연극제 최우수 단체상 2회, 전국연극제 은상 등을 수상하였다. 연극 인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여수·여천 청소년 연극 축제를 14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여수 국제연극제는 제5회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세계해양공연예술제로 12회째 연극제를 치르고 있다. 건전한 공연 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극단인 만큼, 창작 작품을 통해 지역연극 활성화와 한국연극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1987년 창단 공연을 시작하여 2009년 현재까지 140여 차례의 공연을 했으며, 2004년부터는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레퍼토리 공연으로 210회 장기 공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5개주 35일간의

일정으로 70여명의 배우가 미국순회공연을 하여 전회 기립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제2절 국악

한국국악협회 여수지부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악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1962년에 설립하였다.

1962년 정홍수, 서행식, 박창곤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국악협회 여수지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7월에 한국국악협회로부터 지부 설치를 인준 받아, 초대지부장으로 정홍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 영당풍어굿

1975년에는 지역을 여수로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국악협회의 승인을 받아 여수·여천지부로 확대 인준을 받았다. 1998년 3월 23일 여수·여천 통합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30일 통합 여수지부 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전국국악경연대회와 남도국악제 및 남도문화제를 주최하였고, 시조연구발표회, 소리사물발표회, 청소년을 위한 우리 춤 우리 가락 감상회를 개최하였다. 진남제 5관5포 농악경연대회, 정기국악공연을 열고 있다. 여수 지역의 전통국악의 발굴, 보존에 힘써왔으며 여수국악협회 지부장 정홍수, 김향순이 주축이 되어 영당풍어굿, 상문살물리기굿, 현천소동패놀이, 현천용수제, 여수노동요 등을 발굴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현재 김향순 지부장을 비롯하여 부지부장 6명, 감사 2명, 이사 9명 등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 역대 임원

1962년 1월 지부장 정홍수(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인준)

1995년 7월 18일, 지부장 박종순(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인준)

2001년 6월 지부장 김향순(국협 전라남도지회장 정홍수)

2. 회원

(상임고문) 정홍수, (고문) 박종순, 김정옥, 최상순, (회원) 김향순, 백천례, 손 웅, 류영숙, 송호중, 김현숙, 배양순, 김운곤, 박현옥, 김옥선, 전남숙, 조송임, 최덕자, 서선엽, 신영덕, 정경자, 윤순심, 김미옥, 김영화, 류춘열, 박성춘, 박윤희, 박은애, 박은영, 박재철, 박춘식, 송보라, 신상례, 신지현, 이경자, 이시원, 이연례, 이효식, 정찬호, 정황옥, 이라영

제3절 연예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여수지회는 여수 지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여수지회에서는 회원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각종 위문 공연과



▲ 하안 연꽃 위문 공연

거북선가요제, 각 동별 가요제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1964년 1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여수지부가 창설되었고, 김기석이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부 사무실을 1991년 7월 3일 봉강동 403번지

에서 광무동 454-4로 이전하였다. 1997년 1월 25일 제16대 지부장으로 정천수를 선출하였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966년 9월 새마을 모범 면·부락 위문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위문 공연을 개최하였다. 1980년 3월 제1회 시장기 쟁탈 건전가요 콩쿠르와 1985년 5월 2회에 걸쳐 순천교도소 악대를 지도하였다. 2005년에는 거북선대축제의 부대행사인 거북선가요제(구 동백가요제)와 각 동별 가요제를 주관하였으며, 매월 여수노인복지회관, 돌산하얀연꽃, 동여수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김충신 지회장과 정천수 부지회장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 고장 출신의 연예인으로는 박노식, 백일섭, 곽진영, 지성(곽태근), 김미려 등이 있다. 작고한 박노식은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적 액션 영화배우로 '격퇴' (1956)란 작품으로 영화계에 데뷔하여, '마도로스 박', '메밀꽃 필 무렵', '돌아온 팔도사나이' 등 총 5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아시아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1969) 하였다.

백일섭은 KBS 5기 공채 탤런트(1965)로 데뷔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KBS1),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MBC), '별들의 고향' (1974), '동갑내기 과외하기' (2002) 등에 출연하였다. 제29회 백상예술대상(1993) 인기상, MBC 연기대상(1996)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하였다.

곽진영은 MBC 공채 20기(1991)로 데뷔하여 '아들과 딸' 등에 출연하였으며, MBC 연기대상 여자신인상(1992)을 수상하였다.

지성(곽태근)은 SBS 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1999)로 데뷔하여 '울인' (2003), '뉴하트' (2007) 등에 출연하였으며, SBS연기대상 우수상(2003), 2010년 제5회 아시아모델상시상식 BBF 인기스타상을 수상하였다.

김미려는 개그맨으로 하이박 1집 앨범 '콩구레츠크레이션' (2006)로 데뷔,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여 2007년 제4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예능상을 수상하였다.

1. 역대 임원

1964년 1월 초대 지부장 김기석 1966년 1월 제2대 지부장 이의근

- 1968년 2월 제3대 지부장 홍정식 1970년 2월 제4대 지부장 이행묵
 1972년 1월 제5대 지부장 김용걸 1974년 1월 제6대 지부장 박경하
 1976년 4월 제7대 지부장 김봉래 1980년 1월 제8대 지부장 양한승
 1982년 2월 제9대 지부장 서고산 1983년 8월 제10대 지부장 이덕건
 1985년 1월 제11대 지부장 양한승 1989년 2월 제12대 지부장 김충신
 1991년 1월 제13대 지부장 정태호
 1993년 1월 제14대 지부장 정태호, 부지부장 정천수, 상임위원 김성국, 사무장 박계빈
 1995년 1월 제15대 지부장 김용남, 부지부장 정천수, 상임위원 박계빈, 사무장 조부현
 1997년 1월 제16대 지부장 정천수, 부지부장 김순범, 상임위원 박계빈, 사무장 조태웅, 감사 주창섭, 김영산
 2004년 11월 제 18대 지부장 김충신
 2008년 4월 제 19대 지회장 김충신 (여수지부에서 여수지회로 변경)

2. 주요 활동

연 도	내 용
1964년 1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여수지부 창설
1966년 9월	새마을 모범 면 부락 위문 공연
1972년 6월~현재까지	순천교도소 위문공연
1976년 4월~현재까지	신풍애양원 위문공연 개최
1978년 8월	광복 33주년 가요콩쿨대회 개최
1981년 6월	여수고아원 위문단 공연
1982년 11월	여수시민 위안 공연
1983년 8월	향토대대 위문 공연
1984년 8월	8·15경축 영호남 가요콩쿨대회 개최(만성리 해수욕장)
1985년 7월	만성리 해변 노래자랑 개최(만성리 해수욕장)
1987년 4월	제7회 신인 발굴 전국 가요콩쿨대회 개최(타워클럽)
1988년 5월	제6회 어버이날 노인경노찬치 공연(시민회관)
1989년 8월	제44주년 광복절 기념 동별 노래자랑 개최
1991년 10월	제15회 여수예술제 시민 위안 공연 개최
1998년 10월~ 현재까지	시민의 날 기념 동백 가요제(거북공원)
2005년 5월~ 현재까지	거북선가요제 (구 동백가요제)

3. 회원

임영환, 박신언, 김충신, 김철호, 유근성, 김정훈, 김복례, 윤재율, 장양숙, 김순자, 김종오, 황창욱, 이동준, 한부곤, 서춘근, 김철수, 김태효, 소금식, 김근선, 박종심, 김년숙, 윤재식, 박인덕, 송혜정, 정천수, 서정석, 이운재, 정운수, 이인수, 고운중, 김순광, 장정현, 김선희, 김승호, 김판영, 노순옥, 박전원, 황준, 강희삼, 이문자, 주창섭, 조태용, 김용병, 박성재, 김재순, 최용봉, 강선애, 노선주, 김희숙, 조은경, 윤경수, 김승호, 김민경, 신봉순, 김영석, 서유진, 나미순, 유성환, 이영화, 안자섭

제4절 무용

여수 무용은 1940년대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1949년 조용자와 1953년 김소미자의 무용발표회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지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김종남이 1959년 10월 무용연구원을 개설하면서 우리 고장 학생들이 무용인으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의 무용사가 태동한 것은 신병식이 1960년에 연출한 창작무용극 「에밀레종」이 무대에 오르면서 부터다. 1988년 여수를 처음 찾은 국립발레단은 그 후 매년 한 번씩 「지젤」, 「최태지의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 등의 작품을 공연하여 여수 지역 무용이 활성화되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여수 지역 무용인들 역시 무용발표회 수준을 넘어



▲ 이원국 발레단 초청공연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정도의 기량을 과시하였다. 1997년 김숙희가 「가슴 달린 서랍을 열고」란 작품으로 전국무용제에 참가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장미영이 「꿈꾸는 바다」로 전국무용제에 출전,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역량을 빛내고 있다.

우리 고장의 무용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무용협회 여수지부의 변천과정과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무용협회 여수지부는 1981년 7월에 결성되었고, 1991년 4월 창립총회를 열어 동년 5월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초대 지부장으로 김숙희가 선출되었다.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의 고급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매년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초청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또 매년 여수예술제와 전남무용제, 전국무용제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회원 발표회와 청소년 발표회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무용 발전과 지역의 무용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역대 임원

1991년 제1대 지부장 김숙희, 부지부장 이정옥, 신남수, 사무장 박지남, 감사 김진애

1998년 제2대 지부장 신남수, 부지부장 김진애, 사무장 이윤천, 감사 이정옥

2006년 제3대 지부장 이윤천, 부지부장 허소영, 사무장 장미영, 감사 최영미

2009년 제4대 지부장 장시은, 부지부장 허소영, 사무장 장윤경, 감사 최영미

2. 주요 활동

연 도	내 용
1974년 10월	제1회 여수문화원 주최 호남무용경연대회 개최
1977년 10월	제1회 여수예술제 무용발표회
1979년 6월	제1회 김숙희 창작무용발표회 개최
1981년 4월	광주 박준희 무용 초청 발표회
1981년 7월	한국무용협회 여수지부 결성
1988년 10월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

1989년 5월	경희대 김화례 무용발표회 초청 공연
1991년 5월	사)한국무용협회 여수지부 인준
1994년 10월	장미영무용단 창단 및 제1회 창작 발표회
1997년 9월	전국무용제 참가, 작품: 가슴에 달린 셔랍을 열고, 안무: 김숙희
1999년 5월	국립발레단 지젤 초청 공연
2001년 6월	국립발레단 '최태지의 해설이 있는 발레'
2001년 9월	전국무용제 참가, 작품: 꿈꾸는 바다, 안무: 장미영, 연기상 수상
2002년 3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초청 공연
2003년 4월	국립발레단 '지젤' 초청 공연
2004년 3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초청 공연
2005년 11월	서울 발레시어터 '모던발레' 여수초청공연
2006년 9월	대한민국 남성무용포럼 여수무용단 초청공연
2007년 5월	한양대학교 문영철 발레 뵤에마 여수초청공연 "달의 자유"
2008년 9월	제17회 전국무용제 장미영 무용단 초청공연 "검은파도속으로"
2009년 12월	이원국 발레단 여수초청공연 '세레나데'

3. 회원

(고문) 안봉녀, 김숙희, 신남수, 이정옥 (회원) 장시은, 허소영, 최영미, 장윤경, 이윤천, 김진애, 박지남, 정연숙, 박범필, 이정화, 김희숙, 조경민, 엄상아, 나안숙, 김은영, 조가영, 정은하, 김수정, 이성미

참고문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부, 『여수에총사십년사』, 200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전라남도연합회, 『전남예술』 15·17, 2006·2007.

